朝鮮日報
夕刊
三十日(金)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泰?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反蔣系將校團에게 蔣氏成都서抑留

西南、北中直時로獨立行動敢行?

日本軍部에도情報到着

(寫眞은 蔣介石氏)

【電通天津三十日發】昨夜深更 南京政府側으로부터 當地中國側某要人에게 達한 確報에依하면 蔣介石氏는 二十九日 四川省成都에서 反蔣將校團(一說에는 劉湘軍)에게 抑留되엿다 그리고 同樣의 消息은 日本軍部에도 드러왓다 (號外再錄)

【電通北平三十日發】當地中國側入電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成都에서 劉湘軍에게 監禁되엿다하다

【電通北平三十日發】蔣介石氏의 監禁報道는 當地公安局에 南京側으로부터 入電이잇슴으로 相當히 確實한것이라고 觀測되다 그리고 이것이事實이라고하면 中國全土는 忽然蜂巢를 건드린것과가튼 混亂狀態에 陷入하야 特히 西南及北中은 即時獨立行動을 取하리라고觀測되다

蔣介石氏抑留說 一部에선事實無根視

【上海三十日發聯合】蔣介石氏가 成都에서 反對派에서 監禁되엿다는 報道가傳하는데 同氏는 目下成都에잇지안코 成都西南 峨嵋山에서 軍官訓練에 從事하고 잇다고 解釋되다 監禁說은 事實無根이라고觀測되다

北中陣容整備 樂觀은時期尙早 日本某方面의觀測

【北平二十九日發聯合】政務整理委員會及 軍事分會의 撤收로北中陣容의 再建이 一般으로對日交涉進捗上에 好結果를 齎來하리라고 期待되는데 反하야 日本某方面에서는 이러한 見解에 反對하야 政務整理委員會及軍事分會의 撤收는 從來地方當局에 依한 對日交涉을 中央으로 移管키爲한 方策에 不外하는것이라하야 左와 如히말하엿다

過般의 蔣介石 汪精衛兩氏의 會見으로 決定된 對日方針을 親日政策이라고 생각해서는 큰錯誤다 今回의 新對日根本方針의 要點은 今日까지 하여온 地方的 對日交涉의 失敗에 鑑하야 今後再次이러한 失敗가 업도록 日本軍當局과 個別的直接折衝을 企圖하려하는데 잇다 北中經濟委員會設置와 如한것은 그動機가 不純한것이 看破됨으로 結局實現되지못할것이다

綏遠省各黨部 一切活動停止

【電通天津三十日發】綏遠省內에잇서 各黨部는 二十九日以來一切의 活動을 停止하엿다 右는 高橋駐在武官이 過般太原에서閻錫山 傅作義氏等과 會見하엿슬際에 勸告한 趣旨에따라 傅作義氏가 轉向을示한表現이다

北平政整委員會 國府正式撤收決定

王克敏氏께準備訓令

【南京二十九日發聯合】北平政務整理委員會의 撤收는 二十八日國府中央에서 正式決定 二十九日國民政府令으로서 即刻撤收의 指令을 發하는同時에 王克敏氏에 對하여는 解散準備를訓令하엿다

地方外交만을 商主席이處理

【電通南京卄九日發】國府는二十九日 政務整理委員會를 即日解散한다는 宣言을 正式發令하는同時에 今後察哈爾 河北各省에잇서 地方外交事件은 商主席으로 하여금 處理케하고 地方的性質을 가지지안는 外交事件은 中央에서 處理한다는 旨를 發表하엿다

滿鐵新資金 計畫案樹立

【東京電話聯合】滿鐵昭和十年度社債發行 豫算總額은 一億七千萬圓의 巨額에 達하는데 問題는 今後의 膨大하고 長期에亘한 資金計畫如何인데 右에 對하야 松岡新總裁는 着任後 即時經理擔當者인 佐佐木理事로하여금 至急成案을 엇도록 努力시킬터이다 即滿鐵은 現在未拂込民間分 一億八百萬圓 社債發行餘力 二億六千二百萬圓 合計三億七千萬圓의 資金調達의 餘力이 남어잇슬뿐인데 右는 今年度와 來年度로서 거의 그全額을 消費할것은 明白하므로 昭和十二年度 以後의 新資金計畫樹立은 今日 焦眉의 急을 要하는터이라 目下 佐佐木理事로하여금 社債發行限度擴張案을 中心으로 詳細한 計畫의 立案을 急히 行하고 잇는터인데 松岡新總裁就任 第一着手로 이에全力을 傾注하기로 決定하고 財政計劃의 現狀을 檢討하는同時에 現地軍當局의 諒解를 어든 다음에 느저도 十月 本社에서 開催될 重役會議에 來年度計劃案을 上程하고 一方 大藏省當局과 交涉을 始하야 中央各官廳及 財界有力者의 認可를 엇도록 努力할터이다

政整委員會解消後 三巨頭政治出現

北中軍事分會도撤廢

【北平二十九日發聯合】政務整理委員會의 撤收에 뒤이여 軍事分會도 不遠에 撤收하기로 內定하엿는데 政治的으로는 商震氏 軍事的으로는 宋哲元氏 그리고經濟的으로는 王克敏氏가各其分擔하고 各自權限內에 잇서 對日交涉에 當하게될 模樣이다 따라權限上으로보면 모도軍事分會及 政務整理委員會時代보다도 縮少되리라 觀測되는데 從來北中政治擔當의 最高機關이든 政務整理委員會가 半身不隨로되여 大公報와 如한新聞은 其社說에 王克敏氏下에서 政整會는 그職務가 겨우新聞記事의 檢閱에 끗치다고 述하기까지하엿고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도 治績에何等볼만한것이업는 內閣이엿다고 論하엿다 今回의 陣容一新은 各自의 寵職實現上에 實質的效果가 잇스리라고 期待되여잇다

英、國際輿論을動員 伊國制裁에邁進

米佛에對伊問責決議提案期待

英政府態度依然不變

【倫敦二十九日發聯合】못솔리니首相은 二十八日 國務會議의結果 一切의 障碍를排除하고斷乎 에디오피아帝國討征의 師를 이르키겟다는旨를 中外에宣明하엿는데 右聲明에 對應하야 英國政府에서는 어데까지 全世界의 輿論을 總動員하야 國際平和의破壞者로 못솔리니首相을 道義的으로 追訴할 方針이라고解釋되는데 英國政府는 이든無任所相을 右方針에 基하야 來聯盟理事會에 잇서 各國政府의 支持確保에 對하야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리라고 觀測되는데 一方英國政府에서는 米、佛兩國政府가 켈록不戰條約을援用하야 締結各國政府를 網羅한 一大國際會議를 開하고 伊太利政府問責決議를 提案할것을 期待하고잇는바 當局에서는 伊太利政府의 公團에關하야 二十九日右希望을 表明한바잇다

伊大演習終了 卅日大觀兵式擧行

【電通볼차노二十八日發】四日間에 亘한 伊太利陸軍特別大演習은 二十八日夜半으로써 終了하고 統監못솔리니首相은 靑軍의 掉尾勝利를 宣하엿다 演習의 掉尾를 꾸미는 大觀兵式은 三十日 擧行될터인데 右式場에서 못솔리니首相은 歷史的大演說을 行하기로되엿다

駐에伊武官 夫人同伴으로撤回

【電通아디스아베바卄九日發】아디스아베바駐在伊太利大使館附陸軍武官칼베르히氏의夫人과 秘書官몬메리氏의夫人은 이미 當地撤回準備를 終了하고 出發하기로 되엿는데 兩夫人의 撤回로벌서 에디오피아에는 伊太利婦人의在留者는 一人도 업게되엿다

對에問題는 局地事變으로處置 伊首相所信表明

【電通볼차노二十八日發】못솔리니 伊首相은 二十八日에 左와 如히 에디오피아問題를 어데까지 局地的事變으로 取扱하려는 所信을 明白히하엿다

歐洲平和維持를 爲해서는 一個의 信念이 必要하다 그것은 歐洲以外의 植民地問題와歐洲自身의問題와를 區別하야 這間에確然한 區別을認定하고此를混同하지말것이다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問題와 歐洲情勢와의間에 何等關連이업는 것을確信하고잇다 萬若이解釋이 容認되지안는다고하면그것은 곳새로운一大戰爭의 勃發을誘致케 하는일이다 伊太利의 에디오피아에 關한行動이 英國의 權益을 害하는것이라고하면 그것은 歐洲問題에도 影響할는지도 알수업스나 英國을 脅威할만한것이 업는問題는 全然局地的으로 解決하는것이 至當하다고信한다

伊兵侵入報道에 에디오피아軍增援軍 오가덴國境에派遣

【電通아디스아베바卄八日發】에디오피아軍은 今週來 東南의 오가덴國境警備隊增援軍을 派遣하기로 決定하엿다 右는 同地方에 伊太利領소말리란드로부터 伊太利兵이 侵入하야 오가덴沙漠에 轉駐하야 그스아라로부터 왈왈을 經하야 가라리에 至하는 一帶의 土地七千平方哩의 에디오피아領을 占據하엿다는 報道에 基하야 決定된것으로 最初의 伊에衝突은 이 오가덴沙漠에서 勃發될것으로 보이게되엿다

在에英居留民에 撤回令은無根

【電通아디스아베바卄九日發】에디오피아駐在英國公使館이 居留英國民에對하야 二十四日內로 撤回하라는 命令을 發하엿다는 報道에 關하야 公使館當局은 此를否定하고 二十九日 左와如히말하엿다

居留民에게 撤回命令을 發한 事實은 全然업다 다만 數日前 英國人傳道師에 對하야 休暇中에로 보내는便이 便利하다고 勸告한데 不過하다 그리고公使館當局은 傳道師를 地方都市보담도 될수잇는대로 아디스아베바에 모히도록 考究하고 잇다 그러나居留民의 太半은 自發的으로 續續本國으로 撤回를 開始하야 그數는 全居留民의 三分之一乃至半數에 達한다고推測되는데 다시 六百五十名이 撤回準備中이다 그리고 米國公使館도 米國傳道師의 都市集中을 考慮中이다

伊軍病院船『헤』號 東阿맛사와로向發

【電通나폴리卄九日發】伊太利軍病院船헤레네號는 軍醫、看護婦赤十字社의 救護醫療材料品을滿載하고 에리트리아의맛사와로 向하야 出帆하엿다 그리고 코롬보號는 十月十八日師團의 將校百五十名及 兵士五百名을 실고 同日夕刻에 出帆하엿다

戰備에奔忙한에國境 = 伊에開戰이 迫頭하야 가진準備를다하고잇다 寫眞은 伊領에리트리아 와의國境으로 흐르는河川에 床으로부터 侵入하여오는 伊太利軍을 防禦하려는 에디오피아軍의 運河工作

總督府特別會計 豫算概算書發表

歲出總額三億一千七百餘萬圓 施政以來最高記錄

明年度總督府特別會計豫算概算은 三十日總督府에서 發表되엿는데 歲入에잇서 經常部가 二億六千六百八十二萬圓 臨時部五千六十三萬圓合計三億一千七百四十五萬圓이며 歲出에잇서는 經常部가 二億三千三百六十七萬圓 臨時部가 八千三百七十八萬圓으로 合計三億一千七百四十五萬圓에 達하야 總督府의 豫算은 從前의 大豫算으로 總督府의 豫算은 每年二千萬圓乃至三千萬圓式膨脹하여가는狀態이다 그리고此를 今年度 豫算에 比較하여보면 總額에잇서 實로二千七百十九萬圓의激增으로 이만치 新規豫算이 決定되엿슴이다 今年度와 明年度의 豫算의增減을比較하여보면 如左하다

▲歲入 (萬圓)

	十一年度	十年度	比較增
經常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臨時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歲出

	十一年度	十年度	比較增
經常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臨時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協商理事會

【브레드(유고슬라비아)二十九日發聯合】小協商國 聯盟理事會는 二十九日 首都벨그라드近郊브레드에서 開會 유고슬라비아外相 이에프레이치氏 체코슬로바키아外相베네슈氏及 루마니아 外相티툴레스코氏는 伊에兩國紛爭에 關한 對策 다음 로카르노案其他에對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伊에紛爭에 關하여는 어듸까지 聯盟의 威信保持에 努力하기로決하고 다시 유고슬라비아 蘇聯兩國關係의 好轉에 鑑하야 유고슬라비아는 蘇聯不承認方針을 放棄하게되여 이에프레이치外相은 聯盟理事會를 機會로 쥬네브에잇서 蘇聯代表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과 交涉하기로되엿다 그리고 합스부르크復辟에 對하여는 三國政府가 相互協力하야 斷乎反對하기로 意見一致되엿다

鐵道政務次官更迭

【東京電話聯合】鐵道政務次官의 更迭은 二十九日의 閣議에서 如左히 正式決定하야 發令하엿다

任鐵道政務次官(一等) 樋口典常
依願免本官 藤岡三四郞

首相一般政務奏上

【東京電話聯合】岡田首相은 三十日 午前十時 自邸를 出하야 官邸에 나와 正午 葉山 御用邸에 伺候 午後一時半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天機를 奉伺한後 二十九日 林陸相으로부터 報告를 受한 軍의 統制問題及 最近의 國際情勢、最近政界의情勢 其他一般政務에 對하야 詳細奏上하고 皇后陛下께 奉伺하고 同二時지나 退出하고 即日歸京하엿다

日埃會商에 隨員二名決定

【東京電話聯合】政府는 二十九日 日埃通商會議에 笠間天城日本代表委員을 正式發表하엿는데 外務省은 三十日 代表隨員二名을 決定하고 左와 如히 發令하엿다

大使館一等書記官(勾里) 千葉蓁一
領事(알렉산드리아) 黑木時太郞
任日埃通商會議帝國代表隨員 (各通)

閣議決定事項

【電通東京電話】二十九日의 閣議에서 左의事項을 決定하엿다

一、朝鮮總督府遞信官署官制中改正의 件
一、特命全權公使 笠間杲雄
總領事 天城勳治
카이로의 日本國及 埃及國間의 通商會議日本代表 被仰付(各通)
一、敍高等官四等 藤岡三四郞
任鐵道政務次官(一等) 樋口典常
依願免本官
一、大使館參事官 藤井啓之助
敍高等官一等

八面鋒

◇ 天津電報는 蔣介石氏의 抑留監禁說을 傳한다。
◇ 南京이나 上海電이 오기前에는 미들수업스나、事實이라하면 中國은 어대로 가는가。
◇ 大阪地方 風水害로 在留朝鮮兄弟의 罹災者가 또 一萬七千餘名。
◇ 昨年以來 僅僅히 너어온殘命 이 또 이악착한 試鍊을 엇더케 겨그라말이냐。
◇ 날시는 선득선득하여지고 土幕은 지지못하게하고。
◇ 都市美觀과 衛生關係라니 그럴듯도하나、貧民生活의 根據는 어대다가 매들렌고。

英米抗議不拘코 全世界左翼分子와協力하야 資本主義國家打倒에로邁進

코민테른決意發表

【電通莫斯科二十九日發】코민테른은 赤化宣傳工作에 關하야 米英兩政府의 蘇聯에 對한 抗議가 센세이슌을 惹起하고잇는此際 二十九日 코민테른은 左와 如한決意를 發表하야 팟시즘과 資本主義를 排擊키 爲하야 斷乎 全世界의 共産主義者 其他 左派와 協力할 意圖를 闡明하엿다 코민테른은 資本主義와 팟시즘을 打倒하고 世界革命政府를 樹立할 目的을 速成키 爲하야 全世界의 共産主義者를 爲始하야 其他左派와 協力하야 그 目的의 達成을 爲하야 帝國主義國家 資本主義國家와의 抗爭에 對하야 積極的準備를 進行하는同時에 政治的能率의 激發을 向하고 邁進하려한다

松岡新總裁着任

【電通大連廿九日發】政府要路와 東京、大阪의 財界金融界의 有力者와 滿鐵經營에 關하야 隔意업는 意見交換을 行하고 二十九日赴任한 松岡滿鐵新總裁는 드듸어 過渡的滿鐵經營에 劃期的인 第一步를 내여드듸기로 되엿는데 目下 滿鐵當面의 懸案으로는 改組問題를 爲始하야

一、鐵道의 一元化經營
一、商事會社의設立
一、東亞課의 擴大强化
一、人事의 刷新
一、傍系會社의 新設
等社內機構의改善으로부터
一、北中經濟工作
一、石炭液化
一、輕金屬工業에 對한 新規事業의 計畫

等 社外機構의 擴大에 對하야 松岡新總裁는 經濟機關으로서의 滿鐵의 新使命에 立脚하야 經綸을 傾倒하고 右諸案件의 解決에 當하야 名實共히 世界第一의 大會社로서의 滿鐵王國의 新面目을 發揮할터로 全社員은 新總裁의 手腕에 全幅의 信賴를 두고잇다

滿鐵二千萬圓融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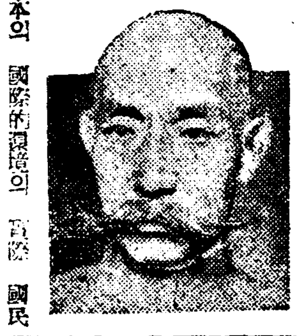
【電通東京電話】滿鐵에서는 資金流用에 充當키爲하야 二十九日 신디케이트銀行團의 幹事銀行인 興銀에 對하야 前貸金二千萬圓의 借入을 申請하엿슴으로 興銀은 直時 신디케이트團과 妥協한 結果 三十日期步日錢一錢二厘로即日融資하엿다

廣義國防의 積極化를爲하야

行政、財政稅制三面을解剖! 明年度豫算編成에大影響?

注目되는陸軍의態度

【電通東京電話】荒木陸相時代로부터 陸軍의 傳統的方針인 廣義國防에 關하야 陸軍에서는 內閣審議會와 調査會에 對하여도 相當한 期待를 갖고잇는데 目下 日本의 國際的環境의 窘迫 國民生活의 窮迫 其他國防에 關한 國內諸方面의 現狀으로 봄때에는 益益 그强化前進을 必要하게되다 그리고 陸軍部內에도直接關連을갓는것이라는 見解下에 林陸相은 此際國防國策의 再檢討 再確認을 行하기爲하야 合法的手段으로써 目的貫徹에 邁進할決意를表示하고 着着準備를 進行하고잇다 그리고 그具體的方法은 아직明確하지못하다 國民生活의安定과 國防產業의 開發及各種國防整備構成、國家主義思想의徹底를 基調로한 國民精神運動等이 그核心이되는것이라고 豫想되는데 此等을核心으로한 政府와의折衝은 明年度豫算交涉에잇서 第一步를 내여딧게될 模樣인데 林陸相은 此際單純히 陸軍의 五個年計劃實現을 期할뿐더러 더욱國民生活의安定과 密接한關係를 가진諸研究도 實現하기爲하야 積極的으로 要望하고 希望이잇스면 일속부터 研究하여온財源上意見도 參考로 提示하야政府의善處를 促할터이다 그리고右財源上陸軍의 意見의骨子는 一大英斷으로써 行政財政、稅制의 三方面에 解剖의 鉞刀를 加하지안코는 안되겟다고하는 模樣인데 歷代의 內閣이 取하여온 態度方針에對한 部內一般의 不滿은 益益增加되고잇슴으로 右陸軍의 廣義國防實現에 對한 積極的態度는 明年度 豫算編成에도 影響할바가 多大하다고보나 그推移는 相當히 注目되여잇다


(寫眞은 林陸相)

英政府未曾有의 大建艦計畫發表

◇델리그랍紙報道

【電通倫敦二十九日發】데일리텔레그랍海軍記者의 報道에 依하면 英國政府는 倫敦條約의 에스카레터條項을 發動하기로 決定하고 右에關한 條約調印國인 日米兩國에 通告를 發할터이라한다 그리고 同記者는 今秋再開될 會에서 從來發表된것보담 大規模이며 또期限을 短縮한 大建艦計畫에 關한 聲明書가 發表되리라고 報道하고잇다

陸軍省局部長會議

【東京電話聯合】陸軍省은三十日午前十時 局部長會議를 開하고 林陸相 橋本次官以下 各局部長出席 軍의統制問題에 關한 그後의情報를 交換 協議를 遂하고十一時散會하엿다

惡疫에죽지말나!

泄瀉와 腹痛에 잘듯는 ヘルプ 何故?

▼泄瀉가나는것은…… 不消化와 腸菌作用이 原因인故로、그냥 收斂劑로一時的으로 그치게한것으로는 도로혀 身體에 害가되는수가잇다。消化와 殺菌作用을 兼備한ヘルプ의 治療가 安全!
▼顔色이 나쁜것은…… 慢性腸胃加答兒때문에 如何한 滋養이 豊富한 食物도 설사할적마다、營養의 大部分을 排泄하야 漸次로 身體가 衰弱하고 氣力이 損失하야 顔色이 나빠지는것입니다。
▼健康하고 元氣업는것은…… 腸胃加答兒때문에 榮養不良이되고、自然히 元氣가 업서진다 ヘルプ를 服用하면 腸의 機能을 整頓하고 胃의 消化를 도아 滋養의 吸收力을 旺盛케하는 때문에 또元氣가 潑溂。
▼惡疫에 걸리기쉬운것은…… 腸胃가 健全하면 惡疫菌도 胃中에서 撲滅할수잇슴은 이미 醫學上의 定說이다。

柏村博士創製
腸胃カタルの藥 ヘルプ

이러한때ヘルプ
■急性설사腹痛할때……八錠
■어쩐異常하다할때……四錠
■食後에 몇숙이거북할때……三、四錠
■大便後 공연히배가거북할때……四錠
■旅行中에는水土不服、食傷、時候不調로 腸胃를害키쉬운때……二、四錠
■二三錠의 常用은 腸胃整腸에有効

ヘルプの藥効
過飮、過食、水土不服、冷腹、氣候不調、消化不良等으로생기는
설사 복통
토사 복창
복명 후중
腸카타루 胃카타루

定價
二十錠 二十錢
三十錠 三十錢
旅行用ポケット型 五十錢
德用 一圓 三圓 六圓

全國各藥店에잇슴
本舖 東京·池袋一丁目 津村敬天堂

全南北旱災地農民 救濟보다勞働移民에

社會課서北朝鮮에輸送計畫

萬二千名을限度로

전라남북량도를 중심으로한한발은 삼십년이래의 대한발로 그리재민은 백만명에나 달하야 그참상에 대하야는 국히 처참하여 이에대한 응급구제책은 관계각도의 요구에 의하야 방금 총독부에서 조사중에잇서 십일월이나되야 구제에 착수할터이며 또 구제책이 결정 된다 하야도 재정관계로 결국 그리 기대 할수업는것이 되겟슴은 틀림업는 터이라하야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작년 삼남 대수재의 리재민을 북조선의 로동시장에 이민한 실례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한발리재민의 북조선이민을 단행하기로 되엿다한다 그리하야 사회과에서는 금년구월부터 명년삼월까지에 여러차례에 나노아 이천오백호약 일만이천명을 함경남북도의 토목공사장에 이민하게 되엇다한다 이이민은 주로 전라남북량도의 한재민을 이주식히되 금년 가을중에는 약칠백호 삼천오백명을 라진(羅津) 기타 함남북의 토목공사장에 수송하야 겨울동안에라도 공사를 하는곳에서일을 식히게할터이라한다그런데 이와가치 농민을 토목로동가튼자유로동의 성질을 가진 로동자로 전환식히면 금년은한발이드럿다하여도 명년봄부터의 농사를 짓는데잇서 원주지에서는 곤란을 밧지안켓는가한의문에대하야 사회과에서는 본래 남조선은 농업인구도 과잉(過剩)상태에잇슴으로 그들을로동자로전환식힌다면 도리혀 농촌과잉 인구의 완화는 될지언정 농촌의 농업경영에는 조금도 지장이 생기지안흘터이라하야 금번도의 로동이민예산 칠만원중 남은 돈을 가지고는 전긔와가티 한재민을 북조선에 이주식히어 금후 삼、사개년은 계속할 북조선일대의 신흥도시의 건설과 신흥산업의 발흥지에서 품파리를 식힐터이라한다

羅津에만五百戶 夫婦勞働八十錢

其他土木工事場에周旋할터

明春에또大量輸送

전긔와가티 한발리재민의 북조선이민을 단행하게되 총독부사회과에서는 그제일착으로 오는 구월십사일에 전남지방의 한발리재민중에서 긴급구제를 요하는재민 오백호 이천오백가족을 라진(羅津)읍의매립(埋立)공사장에 수송하기로 결정하엿다한다 이매립공사는 겨울동안에도 자갈(砂利)채취를할수 잇슬뿐아니라 현재에도 자갈채취와 채석(採石)등 공사에 여자도 로동할수잇는것으로 남자는 팔십전 여자는 삼십전가량의 로동임금으로 부처가로동을하면 월수삼십오원미만의 수입을 어들수잇서 호구는할수잇다는것이다 그리고 이오백호이민이 끗나면 다시 이백호 일천명의가족을 전남북의 리재민중에서 다시 북조선 토목공사장에 수송하야도 금년중에는 이것으로마치고 다시 명년이월과 삼월에 이천호 일만명의 한재민 이민을 실시할터이라한다

禮山製絲罷業은 賃金引下가理由

米價올랏스니食費올려다고

警察은十六名檢擧

【禮山】지난이십구일 충남제사주식회사(忠南製絲株式會社)에서 로동하고잇는 녀공삼백여명은늘연 아침을 먹지안코 작업할시간이되여도 입업하지안코 각각 봇짐을가지고 집으로가라함으로 회사직원들은 대경질색하고 정문을굿게닷고 한사람도 내여보내지안함으로 집으로 도러가려든직공들은 문압헤와서 문을열려고 함으로 직공측과 회사측은 극도로긴장되엿슬때에 때마춤 례산서원이 나타나서 화해는되엿스나 작업은아직도 하지안코잇다

상백여명의 녀직공들이 파업한 내용은 회사측에서 일체 입을 염지 안함으로 자세히는 알수 업스나 듯는바에 의하면 녀직공들은 지난달 월급날인 팔월이십칠일을 고대하엿더니 임금을 본즉 대개가 종전보다 일할식을 감하엿슴으로 직공중한사람이 직원에게 사실을 질문한즉 쌀갑시 올너서 식대를올린것이라고 하며 일하기 실커든 가라고 함으로 직공들은일제히 집으로 도라가라든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에까지 이르자당지 경찰은 크게 긴장하야 서원이 동원하야 공장 내외를엄중하게 경계 하는일방 수모자로지목되는 녀공십칠명을 불러서 회사사무실에서 일단취조를 한다음 자동차두대에실고읍내경찰서로 다려갓다 공장측에서는 일반의출입을 엄금하고 공장문아페는 파수가서잇서 삼백여명 파업공은 한명도 외출치못하게 감금하고잇다한다

◇……五穀이 익어가는 가을……(청량리에서)……

日加尤甚한士兵被害 對岸同胞風前燈火

長白縣內掠奪拉去가滋甚

慘狀은目不忍見

【咸興】함남대안장백현 십사도구벽지 고려방자(十四道溝高力房子) 부근에 잠복하고 잇던토병천산호(千山好)의 일대약백여명은 의연출몰횡행하면서 금품강탈을 계속중이다가 지난이십칠일저녁 십삼도구 도천리에이동하여 동지이주동포 가옥십수호에침입하여 량식의복등등 다수와 현금삼백여원을 강탈하여가지고도구 동강성(東崗城)에돌아갓스며 동일 토병문명군의일대이십여명도 십삼도구 대북두리강성(大北斗里崗城)에 이동하여 동지김용심(金勇深)의집에서현금 십칠원과 소맥등다수를 강탈하여 가지고 돌아갓다는바 수목번무긔를리용하여 국도의 식량난에빠지고잇는 각지토병대들은 가진횡포를 다하여인질랍거 략탈등감행중인데 다수히 거주하고잇는 동포들의 피해는 목불인견의참상을정하고잇다

李紅光軍再起 長白縣內移動

秋夕前後에襲擊說

지난이월 평북관내 동흥(東興)서를 습격한 공산군리홍광(李紅光)은 그후수차재긔(再起)를 전하고잇든바 이십구일 함남도경찰부에 도달한 정보에 의하면전긔문제의홍상(紅常) 수령리홍광(李紅光)의 인솔한 일백오십여명에 무장한공산군은 지난이십팔일 장백현 팔도구(長白縣八道溝) 오지에 출현하여 동지에 잠거하고잇든 련합토병대수백여명과 합세하여가지고 오는 울력팔월십오일 추석날을 긔하여 장백현내의 중요지 습격을 계획하고 방금전비를 굿게하고 잇는중이라는데 이정보를 바든 동현경무국에서는 아연대긴장하여 엄중히경계를 하고잇다

中江鎭對岸에 卅名士兵出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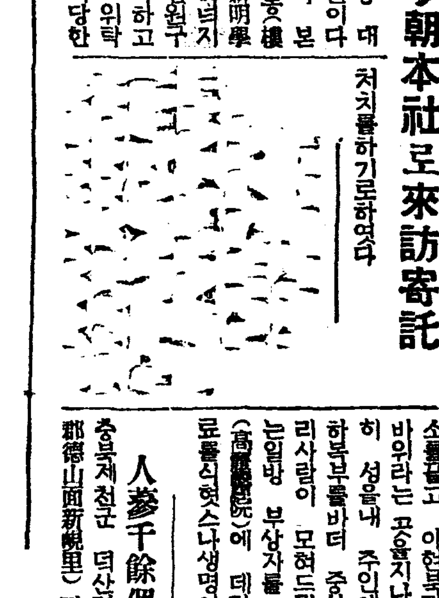
【警務局着電】이십팔일 오후열한시경에 평북중강진장성(中江鎭長城)주재소 바로 대안 집안현호로두(輯安縣胡芦頭)에 계통불명한 반만군삼십명이 나타나 그곳경찰대를 습격하고조선측에 향하야 발포를하고 민가에서략탈을 시작하엿다는 급보를접한 장성주재소에서는 영강(永岡)순사부장이하 륙명이 곳강안에출동하야 삼십분간교전을한후 산중으로 격퇴식히엇는데 쌍방의 손해는 아즉알수업다한다

大阪、北朝鮮에까지 濟州島檢擧擴大

島內에서도數三名다시檢擧

警察은一層緊張活動

【濟州】제주도서귀포(濟州島西歸浦)를 중심으로 청년이십여명이 검거되여 제주경찰의손에엄밀한취조를 밧고잇는사건은 수일전에 돌연 검거가일층확대되여 서귀포상업계의 중견분자리도백(李道伯)(三七)외 청년이삼명과 그외 법환리(法還里)에서도 검거되엿다 또지난이십오일군대환(君代丸)으로대판(大阪)에서강봉주(康鳳周)(二一)란청년이압송되엿고 그외북조선지방에서도 모청년이 검거되여 왓다는데 극비밀리에 사건이 진행됨으로내용은 알바가 업다하며 압흐로 사건진전이 엇지될지 일반은주목을하고잇다



釜山三和系大罷業 總勢男女千名參加

三十日에또三百名이加擔

會社側强硬、警察檢擧

【釜山支局電話】부산삼화(三和)고무회사 동맹파업은 점점확대되야 제일、제삼、제오공장의파업에뒤이여 삼십일오전에는 제이공장 녀직공 이백여명이 또 파업을 단행하야 출근하지안할뿐외라 범일정(凡一町)에 잇는 동일회사계통인「메리야스」공장 남공사십명 녀공이십명도 동정파업을 단행하야 삼십일아침까지 파업에참가한 직공은 남공이 이백팔십여명 녀공이 팔백팔십여명에 달하야 그들은 어데까지 초지를관철코처 결속을 굿게하고 잇슴으로 부산경찰서에서는 도경찰부의 지휘하에 서원을 총동원식혀 각공장을 엄중히경계하야 더확대함을 방지하기에 노력하는일방 제일공장남공정신용(鄭愼用)(二一)외 두명과 녀공김(金)모외 두명 밋제삼공장의남공 리금봉(李今鳳)(二○)외 세명모다 일곱명을 검거하야그 배후에 무슨책동이 잇는가를엄중조사중이다 회사측은 랭패한 나머지에 각공장마다 삼십일오전일곱시까지 출근치 안는직공은전부 퇴직자로 인정한다는게시를 붓처 자못강경한 태도로 파업단측과 대립하고잇다

각공장의 직공수와 파업에 참가한 직공의 수자를 들어보면 다음과갓다

第一工場 男工 二百五十餘名 女工 五百五十餘名
其中罷業參加者 男工 百五十餘名 女工 五百五十名
第二工場 男工 四十五名 女工 三百餘名
其中罷業參加者 男工 二十餘名 女工 二百餘名
第三工場 男工 六十餘名 女工 百七十餘名
其中罷業參加者 男工 三十餘名 女工 七十餘名
第四工場 (方今休業中)
第五工場 男工 三十五名 女工 百 名
其中罷業參加者 男工 三十餘名 女工 四十餘名
「메리야스」工場 男工 百名 女工 四十名
其中罷業參加者 男工 四十名 女工 二十名
合計職工總數 男工 四百九十餘名 女工 一千百六十餘名
罷業職工 男工 二百六十餘名 女工 八百八十餘名

會社側各工場 損害가莫大

職工側主張도强硬

그리고삼화회사 각공장 매일생산수는 제일공장 약이만족 제이공장 약팔천족 제삼공장 약삼천족 제오공장은 약이천족 (단 제사공장은 긔계고장으로 십여일전부터휴업)이여서 회사측손해는 막대하리라한다 그런데각책임자의 담화는다음과갓다

米倉社長談

약삼주일간 일본내지 고무공업을 시찰하고 이제야 도라왓슴으로 내용을 자세히 모르나 무어라고 말 할수업소 현재 임금이상 올려줄 생각은업습니다만 일 오래 계속되면은 단호한 처치를 하겟습니다 아즉 재고품이 만히 잇스니 별걱정은 업소 만일 부족할때는 일본내지 고무공장에 주문하겟습니다 다만 다른공장에 파업이 파급될가 우려합니다 운운

職工某氏談

요번파업은 직공들의 살기위한 파업이올시다 쌀갑 그타일용품은 올나만 가는데 임금은 오르지 안해 도저히 사라나갈수 업습니다 운운

天奉에醫學校 設立코저出願

奉天의鄭世胤氏가

평양(平壤)의사회장으로잇던 의사 정세윤(鄭世胤)씨는 현재봉천가무정(奉天加茂町)에서 춘강(春岡)의원을 경영하고 잇는바 수입전에 봉천총령사관에 의하 전문학교의 설립인가원을 제출하엿다한다 이계획은 봉천상부지(商埠地)에 집을사가지고 약칠만원의 자금을 정씨가 출연하여가지고 중학출신자를 입학식히어 수업년한이개년의 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야 졸업자를 만주각지에 개업케할터로 만주에잇서서는 조선인의 손으로 처음설립될 전문학교라한다

新明校兒童職員이 大阪同胞에義捐

수해동포위문하는뜻으로

今朝本社로來訪寄託

이번 일본각지의태풍피해중 대판(大阪)에거주하는 조선인이다수히 피해하얏다함에대하야 본보의보도를보고 시내 루상동(樓上洞)에 잇는 신명학교(新明學校)에서는 직원과아동이 넉넉지 못한 주머니를털어 현금십원구십팔전을모아 본사에 긔탁하고 피해동포에게 보내달라고 위탁하야왓다 본사에서는 곳처당한처치를하기로하엿다

◇…昨夜凱旋한 養正陸上競技部一行 —朝刊 二面記事參照—

運動競技

東西對抗陸上 代表選手決定

養正·徽文選手參加

大每主催 第六回 中等校 東西對抗陸上競技大會는 九月十五日正午부터 大阪 南甲子園運動場에서 擧行케되바 東西兩軍代表選手(各三十二名)은 去二十四、五兩日間 東京 神宮競技場에서 開催하엿든 第二十一回 中等校陸上競技選手權大會와 五月에擧行한 第八回 關東、關西兩인터 1미-들大會의 成績을 資料로하야 日本學生 陸上競技聯合에서 選拔케되여 지난二十六日 午後一時부터 赤坂幸樂에서 詮衡委員會를 열고嚴選한結果 다음과가튼 選手를 決定하엿다는데 西軍멤버」中에는養正高普의金克煥 孫基禎 白承旭三君과 徽文高普의 洪永燾君京師黃大峰君이 被選되여 자못 그들의活躍이 期待된다。그리고東西兩軍代表選手에對하야서는大每本社로부터九月五日까지에 出場有無를所屬學校長에게 照會하야 不參加의境遇가 잇슬때에는 다시選手中에서 補充하야 正式「멤버」를九月十日에 編成한다옴 各種目의 出場詮衡을 交換할터인바 지금까지의 戰績은西軍四勝、東軍一勝이라한다

龍中7 淸溪6

淸溪 靑城 龍中三俱樂部 第一回리-그戰第三日의淸溪對龍中戰은 二十九日 午後四時四十分부터 龍山鐵道球場에서 龍中先攻으로 開始되바 結局七對六으로 龍中優勝하엿다

龍中 0000040201
淸溪 0000021030 6—7

朝滿野球京商優勝

【奉天】朝滿對抗中等野球大會第四日 京城商業對仁川商業의決勝戰은 廿九日 午後四時부터 奉天滿鐵球場에서行한바 補回戰에 드러가 二對一로 京城商業이優勝하엿다

佛伊米陸上對抗 米國壓倒的優勝

【巴里發聯通郵信】米國、佛蘭西伊太利三國對抗陸上競技會는 지난四日當地에서擧行한바 十四種目中에서 米國이十一種目에 壓倒的勝利를占하엿다

◇百米 1피-쿡(米)一〇秒六 ◇四百米 1후쒸(米)四八秒二 ◇八百米 1라지(伊)一分五三秒 ◇千五百米 1뿌라이트(米)三分五六秒六 ◇五千米 1로찰드(佛)一五分七秒六 ◇高障碍 1코-프(米)一四秒六 ◇中障碍 1무1아(米)五四秒八 ◇投槍丸 1라이맨(米)一五米四〇 ◇棒高跳 1로이(米) 三米七九 ◇投圓盤 1노-엘(佛)四五米五〇 ◇走幅跳 1피-쿡(米)七米八四 ◇走高跳 1존손(米)一米九六 ◇四百米리레-1 米國四二秒八 ◇千六百米리레-1 米國三分一九秒

全日本中等蹴球 新戶一中優勝

【大阪電話】大每主催 第十七回 全日本中等校 蹴球大會 第四日의 優勝戰神戶一中對天王寺師範戰은 二十七日 午後四時半부터 南甲子園運動場에서 神戶一中先蹴으로 擧行한바 二對一로 神戶一中軍이 優勝하엿다

神戶一中 2 (2—1 0—1) 1 天王寺師範

詐欺新藥現場서 自稱僧侶가被捉

이십구일 오후두시경에 시내삼청동(三淸洞)륙십륙번지에 부녀자만 잇는틈을타서 자칭안심사(安心寺)승려 두명이 들어와서 염불을하며 금품을바치고 룽통을 들이라고 갓언리설로써 기도사긔를하고 잇는것을 소관종로서원이 발견하고 즉시본서로 인치하야 엄중조사한결과 그들은 대구부남산정(大邱府南山町)사는 사긔 전과 일범의 박병규(朴秉奎)(二八)와 청주군남이면사동(淸州郡南二面寺洞)사는안심사(安心寺)의파계승(破戒僧)인 림귀득(林貴得)(二七)이라는 아편중독자로서 시내각처를 회행하면서 전긔와가티 부녀자에게 긔도사긔를 하고를아단인 것이 여명되엿는데 목하그피해범위와 피해자를 엄중 취조중이다

傳染病患者는 官吏가最多

다음엔銀行會社員이만허

京畿道의最近調査

지난칠월이십일부터 팔월이십일까지 경긔도내에서 발생된 전염병환자 구백오십팔명의 직업별통계수자에 의하면 관공리(官公吏)가 수위로 일백팔십삼명이고은행회사상점원이일백삼십칠명이며 청부업(請負業)직공이 칠십오명이며 료리업자(料理業)산파(産婆)가각두명식으로 제일적다그리고 구백오십팔명중 조선인이 사백륙십삼명 일본내지인이 사백팔십오명이다

人蔘千餘個竊取

충북제천군 덕산면신현리(堤川郡德山面新峴里) 리의용(李宜鎔)(二五)은 지난칠월상순경부터 강원도양구군남면 심포리(楊口郡南面深浦里)근방에와서 날품파리를 하여오든중 지난이십사일 오후여덜시경 그동리김공녀(金公女)의소유 인삼(人蔘)바테서 인삼오년근(五年根)일천사백여개 시가이백여원어치를 몰래 캐여가지고 어데로 잠적하엿는데그는 인삼을 가지고 경성방면으로잠입한 형적이잇다하야 경긔도경찰부에 수배가왓슴으로 동부에서는 곳시내각경찰서에 수배하야 범인을 엄탐중이다

소뿔에重傷

자기의 소에게 바치어 생명이 위독=이십구일 오후네시경 시외연희면서세교리(西細橋里)박인수(朴仁壽)(三三)는 자기집에서 길르는황소를끌고 아현북리(阿峴北里)걸바위라는 곳을지나다가소가 갑작히 성을내 주인에게 덤벼 뿔로 하복부를바터 중상을식혓는데동리사람이 모혀드러 소를제지하는일방 부상자를 부근고려의원(高麗醫院)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식혓스나생명이위독하다한다

太極旗形이問題

【春川】지난 이십칠일에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읍 본정 이정목에 사는 김긔종(金基鍾)(二○)이라는 청년을 돌연검거 하얏다가 다시 이십팔일에는 전긔 김청년은 석방하고 그의 부친 김조길(金祚吉)씨를 검거 하얏는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긔 김씨가 지금으로부터 약삼년전에 평양에잇는 모친지에게 보낸 은수저에 태극긔모양을 삭여너흔것이사건의발단이라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昨朝 大阪西方에 잇든 颱風은 北北東으로 進하야 今朝는 北海道의 東에在하야 中心은 七四〇미리이다 七五四미리의 低氣壓은 沖繩과 石垣島의 中間海上에 잇서서 北東으로 進하고잇다 七五九미리의 高氣壓은 滿洲及黃海로부터 朝鮮으로 떠지고 잇다 滿洲、朝鮮은晴、朝鮮海峽은曇 日本本州는 天氣가 回復되엿스나 北海道와 樺太는 風雨가 甚하다

昨日 氣溫 最高 三十一度五分 最低 二十一度八分
今日 正午 二十七度三分

九月新學期生徒募集
●數學部(中學一年組 二年組 各二ケ月修了)
●英語部(三年組 四五年組 各二ケ月修了)
●理化學部 初級組 上級組 各二ケ月修了
●國漢部(一二年組 三四年組 上級組 各二ケ月修了)
●綜合高等受驗科 英數國漢綜合
●單科高等受驗科 英數·國漢·理化·各科
高等受驗의準備는六月부터
高校에、醫科方面에、工業方面에
商業方面、農業方面에、合理的指導
專檢資格·諸校卒業은一個年半으로獲得
中學卒業의近道—中學三四年에編入
普校卒業生은! 明春三月 中學三年에
高普一年修了生은! 明春三月中學四年에 準備完了
研數學館 東京神田·西神田一丁目
午前 午後 夜間

農林省比較審査最高金牌受領
共進會博覽會賞牌受領二十數回
特許號 (兄弟ホーオー式) 全自動型選別機
(兄弟ホーオー式) 一號型唐箕付籾摺機

農村救濟를爲하야 奉仕的 特別廉價提供優良한 機械를 하시라면 먼저 弊社로御照會 即時型錄送呈 代理店募集
鮮滿總發賣元
京城府黃金町一丁目四八(京城驛前)
中央商工社營業部
電話本局四七三五五番·振替京城六一二五番

發動機界最高權威
最新十年型
マスター輕油發動機

(鮮滿總發賣)責任保證
マスタ輕油發動機 ヤンマー石油輕油發動機 グロリー石油輕油發動機 ピクター石油輕油發動機 兄弟ホーオー式製粉機 兄弟ホーオー式籾摺機 板野式ロール籾摺機 板野式籾麥脫穀機 籾拔機、製繩機、精米機 中央式無砂精米機 中央式丸六製粉機 マルヤ式ヒユーガルポンプ 水車鐵物、製油機 各種機械設計工事請負 各種機械直輸入及製作

男子 性器强大 早漏防止器
日米佛露에서大好評인 ケット用理想器特價一圓
明書進呈 京城堅志洞
直輸入品 專門取扱 三寶商
振替京城一八、

胃腸病大王藥 神秘丹
藥價 10錢 20錢 50錢 1.00 3.00 5.00
製造本舖 大邱景春堂 振替口座
京城府壽松町 一手販賣 三中洋行 振替京城

구원얻는법
전에 어떤 청년이 독실한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넘으로 마음에 평안을 엇으려 하엿으나 엇지 못하더니 목사가 그 눈치를 보고 뭇기를 『헤염을 칠줄 아나요』 『암니다』 다시 뭇기를 『헤염을 배우기가 쉽더요』 『가요』 『처음은 어렵지 안흐나 몸에 빠저 죽을까 함으로 늘 심상은 편히 누어 의지하지 못함이외다』 하엿다 과연 사람의 몸은 물보다 가벼움으로 물에 뜨는것이지마는 사람이 그것을 밋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빠지는 것이와가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허락을 깁이 밋고 의지 안흘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그것을 밋음으로 밧지 안흐면 삶을 엇지 못할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영생곳 『그리스도 안에잇다』 하엿고 『내가 저희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자가 업나니라』 하섯다 그런즉 이로써 보건데 구원을 엇는법을 애오라지 알수 잇슬것이다

들으라! 이四大傑作盤!!

蔡奎燁傑作盤
순풍에돗달고
아득한千里길
녹쓰른비티
외로운길손
콜럼비아레코-드

家庭

쉬운듯해도어려운 쓰레질과걸레질

집안이말짱하고환한것은 비질걸레질묘리에달렷다

두손이 섬해 가지고야 방치고 마루닥는것을 누가 못하랴 생각할는지 모르오나 방치고 마루닥기도 꽉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야 바느질이나 바빗에 대한것은 못되겟지오만은 다금질, 치움질에 수월스럽고 헌황하기도 열의 하나가 드물답니다. 그렇이아니라 지금 어느 데에를 가보나

선반에거미줄이

끼지 안코 문접쪽 롱바구니에 먼지가 싸히지 안한 곳은 거의 업지를 안습니다. 그저 한것해야 방이나 마루나 보이는 데만을 비질도하고 걸레질도 해 노흐면 그이외에는 어데가 어떠컨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겟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개화한 세상이오니 비와 걸레를 쓰는데도 개화가좀 필요합니다. 그개화는 어떤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이아래와가치 엿주어드리겟습니다.

×

맨 처음 떨채가 나옵니다. 노픈데서부터 나즌데로 떨어나려 와야 되는것이

원측이지요만은

문설스주의 롤바구니라든지 세간 노픈데를 어대보담 먼저 떨어야 합니다. 바람벽이나 덧문옷즉은 먼지가 떨어짐만큼 세게 떠는것이 조치오만은 세간이나 미다지는상하지 안토록 살살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등이나 거울가튼것은 떨채로 떨다가는 다치기가 쉽습니다. 맨나종 걸레로 훔처내는 것이 낫지안 할까생각합니다.

그다음 비가 나옵니다.

비를뉘여쓸다가

는 칠두리나 장판의 이음새를상하기 쉬우니까 꼿꼿이 들고 쓸어야 합니다. 그러키 때문에 짜른 자루보담은 긴자루가 쓰기에 조쿳습니다. 또 비는 손끗에만 힘을 주어 쓸지말고 어깨로부터 잔뜩 힘을 드리어 쓸어야합니다. 그러키때문에 헐비나 새이삭비보담은 좀더 단단한것이 조흡니다. 비질은 물론 아래목에서 웃목으로 해나려오는것이지만 바람의 방향도 참작하지 안해서는 안됩니다. 일것 쓸어나가다가 바람에 불려 도로 올려보내는것은 마련한짓입니다.

×

다음으로걸레가

나옵니다.

걸레라면 우리네가정에서는보통 더러운것이라고 알아 너덜너덜 다 떨어진 헌헝겁이를그대로 쓰지만은 그것은 아조칠칠치 못한 처사가 아닙니까? 헌헝겁맹이일망정 간조히이 꿰매고 알마치 네모를 지워서 두고쓰면 물품도조코 쓸성도 조치안습니까? 또 그저 이것도 저것도 모다

한걸레를가지고

떨비어서 쓰겟습니까? 방치는데는 방시걸레, 마루 치는데는 마루시걸레, 장을 닥는데는 장걸스레, 물을 흠치는 물걸레, 마른데를 흠치는 마른걸레를따로따로 두고 쓰는 것이 깔끔하지 안습니까? 그런데 먼저 물걸레를쪽 짜서 두손으로펼처쥐고그릇을 닥듯이 바바 문지릅니다. 그런뒤 다시 한번 마른걸레를 한손으로 들고 비질하듯이 흠처 나갑니다. 보통물걸레질만 하고 마나 물끼도 남아잇고 흑비와 물걸레에쓸려나가지 안한것도 잇슬것이라 재미업습니다. 그러고

걸레를쓴뒤에는

받듯이 빨아서 물걸레는때 물걸레를노코 마른걸레는때 마른걸레노치 안해서는 안됩니다.

×

맨나종으로는 장스걸레를가지고 장이며 전등이며를 깡그리 닥습니다. 장스걸레는 보드레한 헌겁으로 맨들어서 삼삼닥거야 합니다.

쓰-스는함부로 치는것이아니요

료리에따라쓰-스도여러가지

양료리에 처서먹는쓰-스에도 여러종류가 잇습니다. 불란서에서는 애초부터 음식마다 거기 적당한 쓰-스를 마처노흠으로 식탁에 따로히 쓰-스병을 둘 필요가 업습니다만 흔히 가정에서나 음식점에서쓰-스병을 따로 노하 다각각 처먹게됩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만히 노아두는쓰-스로는 『워스터쓰-스』『토마토쓰-스』『화잇쓰-스』등입니다. 그런데 서양음식에는 맛이잇고 업는것이 태반이나쓰-스에 달렷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양음식에 서투른우리들은 각종쓰-스를 음식에따라처서먹는법을 모르기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음식맛도 글너질뿐만안이라 후추대를 바다가서도 실례하는수가만습니다 그리고일반적으로 만히먹으며 아는것은 『워스터쓰-스』로 이것은 중국간장이 처음영국에 건너가스슬때부터 생긴것인대 영국료리는 맛이좀담담한편임으로 가인이 식성에따라 처서먹는답니다

최근에는 불란서료리가 만히 류행되지만 음식점에서 습관적으로 『쓰-스』가 식탁에노혀잇습니다. 먹기알맛게 료리해오는것임에도 불고하고 『쓰-스』를 함부로 치는것은 음식솜시가 조치못하다고 [illegible] 미가 됩니다. 요사히 가튼때는 『쓰-스』를 쓰고난후 간수하기 곤란한데입니다 한번쓰고는하로밤시동안한 잘두어면 상해서 맛이변합니다 그리고 채소와육종에치는쓰-스를 대체로분하면 一、화잇쓰-스 二、부라운쓰-스、三、산미(酸味)잇는쓰-스입니다 첫재종류로 생선이나쇠기름을 익힐데는 『화잇쓰-스』를 만히 쓰는데 채소에도조코 배사멜쓰-스는 닭과채소에쓰고 『크림쓰-스』는 생선、닭、쇠고기게란등에쓰며 둘재 종류로 『부라운쓰-스』는 닭、육종에쓰고 『토마·도쓰-스』는 생선、닭、육종에쓰고 『도미그라스쓰-스』는 새고기육종에 쓰며 셋재종류로 『마요네스쓰-스』는 새우나 게에쓰며 『솔타쓰-스』는 쪄서시킨 생선에씁니다.

醫學

자궁병일까요

問 저는 금년 이십사세되녀자이온데 결혼후 월경이 좋으지못하야 고통입니다 월경이 한달식 흡은 삼사개월식 걸너서잇는 때가잇고 월경시는 아래배가 뭅시 압퍼서 면식욕이 업서집니다 무슨병이며 엇떤약을 먹으면조흘까요 (玉山一生)

答 처녀시대에 월경이 순조로히잇섯다할지라도 결혼후에는 일시적 불순하게 되는수가만습니다 그러나 당신과가티 월경시에 하복통이 심한분은 대개 자궁위치의 이상으로 말미아마서 그런중세가 옵니다 자궁위치의 이상이 잇다면 약으로는 곳치지못하고 수술을해서 자궁을 바로 잡어노으면될니다.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錫煥)

건선(乾癬)

問 금년이십세의처녀이온대 팔다리에 여드름갓흔것이 끔찍하게 쪽깔녓스니 그것이무슨병일까요 달으데는안그럿코 팔다리에만 빨긋빨긋합니다 상어겁질갓치 껍질됩니다 치료법을하교하여주십시오 (일독자)

答 피부병인것은물론이오나 엇더한종류의피부병인지는 말삼만가지고는 판단키어려웁습니다 혹 건선 이라는병이안인가 추[illegible] 경솔히 · 약울섯다가 도리혀 해가되지도모르니 속히전문의에게 [illegible]

曆

八月卅一日(土) 舊八月建乙酉(大)初三日 己卯·土·女·危

●祭祀에宜함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라듸오

三十日(金曜)

◇六午後時三〇分童話 기름장사 貪者 沈宜麟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가을에우는버레、가을에피는꼿 (二) 徽文高普 李軒求

◇同八時 講話 標準語制定에對하야 (一) 李克魯

◇同八時三〇分 獨唱과二重唱 一、獨唱 (가)小夜歌…토세리作曲 (나)머-ㄴ산타루치아…伊太利民謠 (다)귀순말…아담스作曲 (라)小夜歌…슈-버-트作曲 二、二重唱 山속의집으로베르듸作曲『일트로·바토레』中에서 소프라노 孫美黎 테너와피아노伴奏 玄濟明

◇同九時 連續라듸오·드라마 沈淸傳 朴彩脚色 라듸오푸레이 미핑 演出 朴彩 効果 李雲芳

全三幕中(第二、三幕)

▲第二幕 處 張丞相夫人宅 時 第一幕의한달後

◇配役 張丞相夫人……金仙草 沈淸……卜惠淑 沈奉事……朴齊行 侍婢……姜石燕 귀덕어미……金蓮實 船人甲……徐月影 同乙……金瑠雲

▲第三幕 處 臨唐水 所 第二幕으로數日後

◇配役 沈淸……卜惠淑 船人頭目……李素然 同甲……徐月影 同乙……金瑠雲 同丙……尹星畝 同丁……朴齊行

◇九時五〇分 레코-드音樂

卅一日(土曜)

◇午後〇時五分 하와이안기-타音樂 一、코·레오 二、외로운길 三、올드·유·이둘런드·무-ㄴ 四、오·돈나·클라라 五、클로라도의달 六、달아래로나오라 七、베니·벤 八、숨린눈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獨奏 李東坡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라듸오學校 가을에우는버레、가을에피는꼿(三)

◇同八時 講話 標準語制定에對하야 (二) 李克魯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잔디밧 二、울지마려요 三、觸荒心歎 四、사랑해주서요 五、꿈은한이업네 六、눈물의漂泊 七、十八歲의밤 宋英愛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歌曲 一、羽調酒擧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金蕉紅 趙点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九時三〇分 古談 相思뱀 車青吾

九月一日(日曜)

◇午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오리떼 二、獨唱 쫌각시 三、同 엄마일혼개고리 四、同 눈은잠자리 五、同 비오는밤、달마지 五、同종달새와굽붕어 七、同 어머님생각 八、齊唱 참새 찌꿀이會 伴奏 尹富永

◇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信仰의普遍性 吳天泳

◇同七時三〇分 鬪山戒馬外 『鬪山戒馬』 二、平愁心歌 三、역금愁心歌 四、앞산打鈴 五、뒷산打鈴 六、梁山道 崔貞子 吳飛燕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赤壁歌 宋萬甲 鼓手 池龍九

◇同八時四〇分 名曲鑑賞 (레코-드演奏) 피아노와管絃樂 星帝協奏曲…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운·포코·못소 終結章 론도(알레그로) 朝鮮音樂家協會 解說 玄濟明 피아노、알러·기-제킹 管絃樂、위나필하-모니管絃樂團 指揮、브루-노·왈터

短篇小說 福順이 (2)

宋影 作 熊超 畫

복순이 어머니는 개천에서 빨어온 옷가지에 풀을먹이어가지고 줄에 널고잇섯다.

『어머니、인저 빨내 다-햇지? 아이、난 배곱허!』

복순이는 머리에 이엇든것을 몽당에 내려노흐면서 부어올랏피어보앗다.

『그것마저 좀 맥여 널고、돌쇠나 불어오거든 가치먹지먼저 먹을네』

어머니는 허리춤을 한손으로 쥐고서 빨내줄에서 손을 떼지못하면서 자긔딸을 나무랫다.

『돌쇠는 어듸 갓수?』

『참외팔러갓다.』

『옹-』

복순이는 그제야 둥우에 헐펵 주저안즈면서 베적삼의 단초를 풀러노코 더운듯이 한숨을 내쉬엇다. 포동포동하고 하얀 젓가슴이 바깐 나와뵈엿다. 댕기드린 머리꼬리를 뚤뚤감어서 풀쪽지은머리의 윤태한것이라든지 조금거칠고 검으스레하게 끄르십절이라든지 어글어글하게 큰눈이라든지 전체로 보아서 건강한 처녀의 매력을임치안헛다 산골작이에서 부러오는 시원한 바람이 울타리를 넘어서 간간히 복순이의 적삼을 헤치고 가슴을 씻서주엇다 해는 따끔게 머리위에서 내리쪼이고잇건만 처마밋 그늘진 뜰에는 시원한 긔운이 돌고잇다 텃을 고이고 안저서 땀을 드리는 복순이는 어느새 조름이 와서 두눈이 사르르 감기면서 고개가 깟댁하여지는것을 깨닷고는 깜짝놀냇다. ——어머니가 일하시는데 내가 좋고잇스면 어쩌나! 그의 조그만 가슴속에서 효심(孝心)이 이가티 가르첫다.

그는 이마에 내려진 압머리카락을 쓰다듬어 뒤로 넘기면서 뜰에서 이러섯다. 울타리 넘어로 논이 보이고、개천이 보이고、그개천 건너편에 펑퍼짐한 들판이 보이고 그끄레 오두만히 서잇는 파란동방을 덜허쓴 조그만 뫼와、그 뫼우에 용게용게 한데모혀서 뭉실뭉실 피여오르고잇는 흰구룸이 한꺼번에 그의 눈에 들어왓다. 저뫼 넘어가 0동리… 0동리… 지나서는또무엇이 잇다는지?… 저뫼우에잇는 휘구룸…저 휘구룸 넘어가서는 무엇이 잇는지……? 복순이는 그것을 아직 듯지못햇다. 아무도 그것을 가르켜 준사람이 업섯든 까닭이다 바람이 벌판을 한번 비질하드시 휘-쓸며 불고 지나가매 키가 알마케큰 논의 벼나 췌산큰키의 강냉이나 모도가너울너울 춤을추고 굼실굼실 절을하는 것갓다. 강냉이는 벌서 먹게되고 벼도얼마잇스면 거두어들여서 타작을하고 그리고먹게되겟지— 이가티 생각하니까 복순이의 마음은 제롭보힘어지엇다.

『모도들 조금식 땅을 가젓든데 우리집은 왜 땅이 업슬가?』

이런생각이 녀름하늘 맑게개인 하구석에서 회색구룸이 피여오르든시 가슴속에서 소서오르드니 외가슴을 덥퍼버리는것갓다 -무봉상산에서 떠내는 굼퉁은 하루에 얼마식이나 되나 그것을 다 무엇에쓰나 그광산이만일 생기지안헛드면 자긔아버지는 무슨버리를해서 외집안이머고 살어갈고!

『어머니!』

복순이는 나종에 빨어온 옷가지를 어느새 풀햇든지 주섬주섬 거더쥐고서 줄에다 널고잇는 어머니를 불럿다. 어머니는 대답하지안코 고개만 도리켜서 딸을 돌어다본다. 빼쩍말른 그의 얼굴、검고、누르고 그우에검버섯까지 피여난주춤한 얼굴과 가느단 목아지、짧은 키、빼빼마른 종아리、이가튼 어머니의 체격이 되와벗즐바더서 딸에저저가지고 복순이의 눈압에 서잇다。 복순이는 그의 어머니를 물드노코서는 그 마음을 알호게하는 어머니의모양에 금시에 말문이 맥혓든지、할말을 이저버렷든지、눈물방에 떠러트리고 마럿다。 이때에 돌연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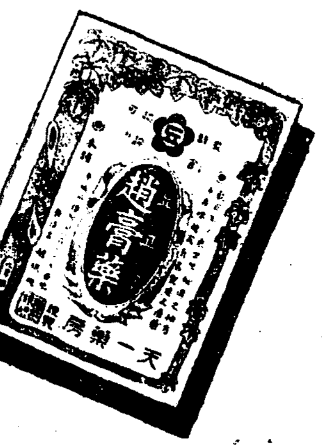
『누나! 점심먹엇수?』

하고、돌쇠가 조그만키에 어울리지안는 뷔지게를 걸머지고서 랄랑랄랑드러왓다。

『참외 장수하고서 오니?』

복순이는돌쇠가 버서노는 지게를들여다보면서반가운드시말햇다

腫氣에 趙膏藥



主治効能

모든종창부스럼 모든종처 유종 담종 담결니는데 발지 구창 낙상 어혈 견비 요통 기타무명종독종

定價 五錢·十錢·二十錢

發賣元 京城府禮智洞 天一藥房 本舖 天一靈神丸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黑髮培養의: 最高洗髮料!

花王샴푸는 少量으로 속살까지 完全히 깨끗하게 하는獨特한 美髮劑의 作用으로 머리털에 營養을주고 潤澤을 주며 成長을 돕게합니다

東亞婦人의 黑髮을 爲하야 생겨난 가장 優良한 洗髮料입니다

화왕샴푸

一個·五錢 (長髮三回分 短髮三回分)

有名雜貨店 百貨店 藥店에잇슴

MS165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추탕은 兄弟酒店

京城府東大門外崇仁洞一九九 支店設置 永導寺入口

第一學年以上各學年若干名 補缺募集

文部省認可 興文中學校 廣島縣吳市

出願期日 九月十日限

一步進步된近代的頭腦藥!

特長 頭痛을 곳 낫게하며 頭腦의 疲勞를 回復하고 또 安息을 도아주는 ノーシン(노-신)●

고통된淋疾에 ネオチリン(네오지린)먹고 웃는얼골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振替京城四五七番

●頭腦를二倍나쓰는 はれやか(하레야가)

『腦의疲勞恢復』

OKEH

오늘에流行하는 新民謠 압강물흘러 오케一七九六番 獨唱 李銀波

朝鮮劇場

近日公開 金剛키네마六回作品 銀河에흐르는情熱

監督 安鍾和 撮影 李明雨 主演 申一仙 李源鎔

桃花劇場

八月二十七日밤부터 ◇新舞臺公演!第一週 二十七日 二十八日

◇李雲芳作 悲劇 妓生 全一幕

◇林仙圭作 支那劇 두집히는黃河 全二幕三場

◇白惟作 母性悲劇 朝鮮의어머니 全四幕

八月二十九日밤부터!! 第二週(二十九日三十日) 最終프로

革新新舞臺의最高堅陣!

(男子部) 卞基鍾、李敬煥、宋海天、沈一晴、河之源、朴捌松、黃敵、朴銀波、朴齊行、沈影、金道日、卜元圭、金松天、金東俊、崔天峻、朴聰彬、紅朗花、方鶴汀、朴滿鮮、趙鍾錄、李允吉、朴齊山、尹之男、李圭現、文東一、錫旭東、嚴載樺、南豊明、李準榮、權五燮、金麟郎、朴齊主、洪鍾仁、金一天、李順吉、秦學納

(女子部) 羅品心、池京順、池季順、金愛順、金富林、吳明心、朴花順、朴英姬、康海仙、許末羅、劉鈴玉、申一仙、徐玉汀

麻浦桃花洞 電龍一二五二 桃花劇場

優美舘

八月三十日부터晝夜二回超特別興行

藝苑座第三回中央公演 瑟星만六十三名이모인大集團!! 劇界初有의驚異的記錄을突破할明朗輕快한레뷰-와演劇!! 朝鮮名物이다나오다

林生員 李福本 全景希 金元浩 孫一平 諸君의裏面

獨唱 尹益炳 李承夏 金允心 朴寶玉 康福本 李正順

總指導 金能盛 演出 徐一星

家庭悲劇 毒草 全一幕 申銀鳳 徐一星 金能盛熱演 湖都婦女子를흥긴感激의名戱曲!! 金能盛氏勞心傑作이다

李瑞求氏傑作! 우슴의大王全景希 金元浩主演 大喜劇 家庭主婦敎育 全一幕 萬一本상상재님이웃지안는다면正式裁判!

豫告 大레뷰 港口마다女子잇다 十景 悲劇 말못하는며누리 二幕 喜歌劇 椰子樹 一幕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舘

わかもと

浪花舘

九月一日より 那霸轉向第一回披露超特別大興行 晝夜三回 晝十一時三十分より 夜七時より 興業實施

一、眼と耳の新聞(第二一八輯)

二、松竹蒲田超特作全發聲 北村小松原作=脚色 野村浩將=監督 田中絹代=主演 夢うつつ 時は一九三五年流線型流行の今日 戀愛から結婚までスピード流線型 花嫁讀本虎の巻!!油の乗りきつた 浩將監督得意の超ユーモア篇!!

三、松竹下加茂超大作全發聲 大阪 東京朝日新聞連載之上於菟吉原作 伊藤大輔=脚色 衣笠貞之助=監督 林長二郎一人三役=主演 雪之丞變化 於菟吉、大輔、貞之助、邢畫界最高最大のスタッフ、及び松竹プロック蒲田、右太プロ、新興寛プロ等一流スター——を網羅して彩る大松竹ならでは成し得ぬ豪華絢爛本年度劃期的超超大作!!

第二週封切の二大巨篇 △噂さの女 △第二新選組

洋劇專門 浪花舘

大正舘

八月二十四日より特別公開 階下席 十錢均一

躍進大都の鎖夏お名残り名畫 大都映畫超特作現代映畫 原作 藤田潤一 監督 服部眞砂雄 ナツパ服四人組 富士幸三郎 冲明二 大岡怪童 若柳みどり 佐田豊彦 園千枝子 共演

肉彈相搏つリングの熱戰カルネラ デムプシイマツクスベア等の世界拳闘界の王者總登場 メトロゴードウイン特作日本版 WSウアンダイク監督 世界拳闘王 マーナ・ーロイ マツクス・ベアー プリモ・カルネラ ジヤツク・デムプシイ 共演 死を賭してリングに火花を散らす大肉彈戰覇權は何處に壯烈悲壯の拳闘!!

大都超特作連續復讐時代劇 監督 大伴龍三、撮影 笠間秀敏 阿部九州男主演映畫 名金天狗立山嵐(前篇) 本下雙葉 松村光夫 相良傳三郎 三城輝子 遠山龍之介、東龍子 共演 加賀十萬石の城下に突風捲き起つた誰の如き錢の行衛を中心にして美男劍士妖婦入れ亂れての大劍陣

櫻井町 本局 八宝 大正舘

朝鮮劇場

八月卅日부터 毎日 午前十一時 午後二時、七時 …生凉!秋期第一週公開…

◆MGM超特作日本版 名匠WS반다이크監督 男子의世界 크라그、께블、윌리암포엘 나로이 三大名星共演 굿세인男性의友情이다、[illegible] 神에사는男性同志의殉情이다 [illegible]

◆푸랑스 [illegible] 봄의파레-드

◆JO太秦全發聲映畫 博士の子 ——(次週特別封切)——

朝鮮映畫 銀河에흐르는情熱 原作脚色監督=安鍾和 撮影=李明雨 出演=李源鎔、申一仙、朴齊行 [illegible]

仁寺洞 電光三六 朝鮮劇場

團成社

八月三十一日낮부터特別大公開

毎日三回正午十二時、三時半、[illegible]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조셉후원스탕바크=監督 모롯코 마레네 디트리히 께리 쿠퍼 共演 파라마운트社特作 가보자에成功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 九五九 團成社

第一劇場

八月二十九日낮부터三日間特別大公開!

新築落成開館第二週!! RCA發聲機完備!! 新興キネマ映畫 現代劇 巨人街 全十卷 高田稔 德川良子 山縣直代 스포스劇 快走 兄님은世界一 [illegible] 入江たか子 高田稔主演 月よりの使者

大衆料金 階上席 二十錢 階下席 十錢 椅子席 十五錢

電光 [illegible] 第一劇場

夏天星象

誤認된牽牛牛宿

悲戀哀話는東西一轍

安在鴻

『牽牛』의 牽牛인 南斗로부터 同一水平을 따러 東으로 한참 떠나 북편에 三等星 한개를 노코

[위로] 五等星 세별이 줄느런히 빗기엇고 아래로 가튼 세별이 小三角으로 옹긔종긔 하게모여 가는단 즉방울뿐으로 된者잇스니 山羊座의 A·B諸星을 이룬者로 實은 牛宿바게서 다시 머리우로 약간 西으로 치우처 올려가면 即 牽牛星의 번뜻한 세별이잇서 仔細히 보면 머리별이 좀

엇것을 알게 되는者이니 이것은 古來의 所謂河鼓 星者로牛宿와 上下에 서로 接近하야잇고 그形象도 서로 비슷함으로 어느듯 牛宿에가서 牽牛의이름이 떠치지고 만것이다 그러나 現在 河鼓인 세별이『右旗』의

[首星] 에關聯를두고곡 天弁의首星에는五 리가잇고 天市垣中『吳越』에 그右變을다히고『天桴』의 아래入근별에는 그左偏部를 連하야 크나큰『수리별形成한것이니 이는 泰西의天文學이 今日에 행세하는바이라 숫나기인 天象觀賞者가 이를

主張함은 매우困難하나 筆者 六七年來의 實際의觀察과 五六種의 今古東西의 天文圖가 이것을 證하는바로 드되어 의심할 餘地가 업다 象村申欽『天文類抄』를 據하야 『牽牛가 移入漢(銀河)中하면 天下乃亂』이라는 古記錄을 引하고 다시『或曰

[河鼓] 고 하엿스니 河鼓는 爲之牽牛』라 하엿스니 河鼓牽牛說은 古傳이 잇는터이오 또現在의『수리座』인 牽牛로써 二十八宿의 牛宿라고치면 斗牛女虛의 同一線을 흩로 뭐어올려 孤獨한 存在인것이 理由가아니닷

五『牛는 天之關梁이니 日月五星이 [illegible] 華之中道』라고 한과가리 黃道의 黃道線중에 당치아니한것이 그 一대한의理由이오 만일 現在 山羊座의 AB星部分에다 牽牛의이름을 부친다면 實際에 觀察하고 驗驗하야온바가 도로혀 흐허진다 山羊座는 黃道十二宮의

[首座] 로서 二千年前에는 全天의 首座인 이星座의中에 잇섯든바이니 銀河속에 쩌중뚝어들어와잇는 現在의 牽牛로서는 좀 와觀가 아우러지지 안흔바이다

×

그래 山羊座의 AB部가 牛宿이오 거기서 東으로 조금떼나 須女라는 女宿는 五六等의 네별이 西南하야 斗柄처럼 버텃스니『須는 賤妾之稱이오 婦職之卑者也』라고 모처럼의 女星이 社會的으로 빗나지못하는者이나 實狀은 그의 한모가되는者이오 게서부터

[虛宿] 를 지나 危宿를 포함하야서 主로 平凡을깨트리는 者이니 지금까지의 平凡을깨트리는 者이니 合처서『페까수스』의 怪奇한 姿態로 된者이다 다만 目下

에는 十一時以後에 차차東南에 나라나는者이니 다음時期로 넘기기로한다 牽牛가 銀河의 東쪽에 잇서 西으로 織女와 마주바라보고잇스니 牽牛는『정신하라비』짜는『각시노로하고 織女는『각시별』로 例에依하야 四時장천 비단 짜는『각시노로하고』 여긔에關한 七夕의밤에 牽牛 織女가 一年一度로 會合한다는

[悲戀] 의 情話를 남긴것이다 牽牛星은 『알타이르』織女星은『베까』로서 모두 一等星인데 牽牛도 그래커니와 푸른빗을 돌렷든 織女星은 女性이라면 자못優艶하야 여간나기로는 부별수업는 女王的存在인것이다 織女星의아때 漸裏라고 하는네個의 크고작은별이 잇고 舊潛입세 奚琴임세의 못별들이 다어부릿스니 合처서『거문고』로된것이오 그래나 子夜玉音商聲과는 因緣이멀은 希臘의 齊詩的인 거문고이니 詩의神인『아폴로』가『올페우쓰』에게 선물로준 不世出의『거문고』로

[한번] 라면 天地萬物이 거긔에 感動되어 無情한 木石이라도 그神秘한韻

律에는 반하여 춤을 추는것이라고 한다『올페우쓰』거문고로 써 冥府에 들어가 이것을 아뢰면 서 地獄에 울고 잇는 사람들을 달래고 잇는참에 冥府大王아닌『푸르토우』조차 마음이 恍惚하게 흘리고말어 죽은 그의妻를 이승에 되돌려보내기로 許하야 올페우쓰、冥府를下直할새 푸르토우 경계하되『이승에安着되기 까지에는 決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하엿더란것이다 올페우쓰 무한히

[操心] 은하엿것지만 이승에발자욱이 다 허슬때 하도궁금해서 흘리처 돌아보앗든탓에 안해는 한마되『애구머니!』소리를 남기어맑은꿈가티 다시에 슬어저갓고 알라까울노라! 내끈진거문고가 虛空에떠올려서 億萬古! 떨어질줄모르는『不滅의거문고』로되엇다고한다 이것도 七月七夕에 맛나고는 울며서로 여의지 아니치못하는 牽牛 織女의 悲戀의哀話와 서로 가튼것이다 여기에는 그럴듯한 天象自然의理由가 잇다고한다

【附記】 前日星圖의『西』는『東』의 誤

文學의擁護 (七)

作家와評論家의意見遞傳

나의無力한『펜』한개

蔡萬植

어 設問은 지금의 나에게는기피 關心을 끌지 아니하오

◇

一年을 넘겨두고 나는 創作을 中斷하엿소

隨筆나부렝기는 틈에 겨우몇은 썻에 좀려 이것다가 생각난것처럼 드문드문 붓을 대엇지만 至於 創作해서는 昨年六月 以來 단 한篇도 쓰지를아니하엿소(一가 아니라 쓰지를못하엿소)

그러던데는 나로서는 제법이 만저만찬은 事情이잇소

[若干] 한두가지가아니오 그러나 그것들은 여기서 披瀝할 性質의것이 아니고 다만 그가운데 하나는

『무엇을?……어떠케 써야하느나?……』

에 다들러가지고 그 解答을엇지못한채 어데로 잇는것이오

◇

언뜻 보기에 問題되지아니하는 問題를 問題삼는것 가트나 남은 몰라도 나는 이問題의 解決이업시는 다시 創作에 붓을 들수는업소

또 아주 單純한 問題인듯하면서도 캐면 캘수록 갈피가 업크러저잇소

나는 이것을 偶然이라고도 또 나에게만 다들린 例外라고도 보지아니하오 반듯이 한번은 그리고 누구나 겪그고래야 마를

[當然] 의 過程이라고 보오 처리도 그가 어떤時代에 處하여 가지고 成熟한 一家를 이룰때 까지 드러서게될 作家로서 當

代意識을 理解하는 藝術的良心의 所有者라면——。

이처럼 나는 重大한 難關에 處하여가지고 그러나 그것以外의 여러가지 深刻하고 難艱한 問題가 잇는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도라볼餘裕가업서 作家로서의 存在를 忘却하고 달리沮沒하기 일수엇섯소

아프로는 어떠틀는지 모르되지나간 一年半은 그러하엿소

◇

左右間 그러한 內部的事情이 잇는때문에 外部的情勢—特히여기에 設問된『外的要因』가튼것은 氾然히 보이오

이것이 내가 冒頭에서 이設問은 나의게 關心을 끌지아니한다고 한理由의 하나요。또 지금

[怒濤] 가치 巨大한 두개의『힘』이 업치락 뒤치락 하느라고 그 波紋이 밀려오는것이 文壇에의『外的要因』임에 틀림이 업는데 모편『힘』도 가지지못한한個의 룸펜(階級的으로)인 내가 一千五百個의 活字로 制限된 이— 文에서 무어라고 짓거린들 이렇굿만한 效果도 엇을것이매 이 設問에 關心을 가지지 못한 또 한가지의 理由요。

도 잇소

『昭和』怪物이 全世界를 橫行하고 잇다고하오 그 正體를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거의다 알것이오。

그래서 무엇도 統制 무엇도 統制하는데 勿論 文壇도 統制를 加할것만은 事實이오。檢閱의 關東과『카프』의

[解散] 이라는 消極的 統制는 이미 잇슨지 오래엇섯고 지금와서는 그것을 一層效果的으로 發展식혀서 이제 積極的 統制에로 나올는지도 모르오

—조차낼者는 조차내고 들려드릴者는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現在 朝鮮의 文壇에서도 말이 그저 漠然하게朝鮮文壇이지 속을 구버다보면外的要因의壓力은 조곰도 밧지아니하고『統制』의 德을 볼사람도 만히잇소 東京文壇에서 最近 이야이거리가 된 文藝懇談會에 關한 橫光利一 室生犀星과 島木健作의 一例를 보아도 알수가 잇소。

◇

그저 그러니까 나는 아주率直하게 말하면 내가 팔을흐루는것고 所信의 方向으로

[邁進] 올곳하고 이러케 觀念을 享樂하는데 먼저서서 잇는一個의룸펜(階級的으로)인 以上아직은 束手無策이라고 말할수밧게 업소

石炭製의 天文時計

【伯林發聯合郵信】近者『하이델베르히』에서 全部石炭으로된 珍奇한 天文時計가 展覽되여 非

漢字의研究

反動的復古思想 (二)

洪起文

아니 三四年來로는 漢字에 對한 一部의 侮蔑 乃至 厭惡도 漸次 緩和되고 그反面 그研究의 必要論이 漸次로 노파가는 形便이다。이때것 내가 모지라진 붓을 수고로이어 重言復言 적어 노흔것도

結局은 時代에 뒤떠러진맷 마듸 군소리에 지나지 못할것 갓다。그러나 그侮蔑과 厭惡의 緩和는 果然 어떠한 傾向을 띄우며 그研究의 必要論도 果然어떠한 方向으로 引導하는가?또一面 그에對하야 미리부터 檢討를 加하야 둘 必要가 잇슬가 한다

는 좋은現象은 아니다 誤解를 엇게되것이 아닌가?

첫재로는 요사이 이르러 어렵고 까다롭고 窮僻한 漢字를 루버이헤노코 稀罕하고 유난하고 괴팍스러운 古典的熟語를 줄달아 놋는 周易式文章이 만히 流行하다

漢字의 初學入德을 畢竟에 爲해서나 自己의 博識을 誇示시키기 爲해서는 그 效果가 잇슬것이 업스되 [illegible] 爲해서는 [illegible]

또 둘째로는 요사이 漢文風月의 熱이 갑작이 上昇해 저서 심지어 령이 틀리고 韻이 어그려진 군두먹風月의 出沒조차 드물지 안하다。그야 閑人의 閑趣味로 風月을 읇거나 말거나그 風月이 되얏거나 안 되얏거나 구지 참견할바이 아니로되 時間과 精力의 浪費로 보아서 哀惜의 情을 禁하지 못 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셋재로는 婚喪의 禮로부터 帝帝의安否까지 純漢文의使用으로 돌아가서 隱然或 公然히 漢字制限 乃至 撤廢에 對한 反對의 聲을

굿세게

맨들고 잇다。周易式文章이나 漢文風月이 날뛰는것도 一種의 反動이 아닌 것 아니겟지만 漢字崇拜의 再擡頭에 아올러는 反動의 著한 表現으로서 그대로 坐視하기에는 넘어나 前輸可惡하다고 보인다 그들이 엇재서 漢字에 對한

侮蔑과 厭惡를 緩和하고 또그들이 어떠케 漢字研究의 必要를 陳述햇는지 내가 그 詳細한 經路까지를 잘 아지 못한다만은 何如햇든지 그 結果가 上記 세가지의 現象을 나타냄에 끄치다는 것만은 疑心할 餘地가 업는일이다。혹시 그들의 動機가 不純하고 그들의

立論이

不當하지 안햇는가 推測하는 사람이 잇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結果를 내밀어가지고는 辨明에 窮하지 안 할까 恢한다。

요지음 윈 세상은 懷古衛古 復古에 미치고 잇다 獨逸人은 아리안의 血統을 讚明하기에 奔走하고 伊太利人은 白色皮膚의 優越함을 宣傳하기에 汨沒하고 中國의 國民政府는일죽이自己네 밝게로 저다차버리엇든 孔夫子의 銅像을 다시修建하게 [illegible] 바쁘고 日本의 各

肆은 新式綴字로부터 歷史的綴字로 看板을 고치어 쓰기에한참동안 겨를이 업섯다。이러한

世界的

바람이 엇지朝鮮인들 불어 지내지 안 할 것인가? 兩班崇拜도 再演되지 안하리라고 保障키 어렵거니 그까지 漢字崇拜쯤이랴? 周易式文章도 이제가 한때요 漢文風月도 이제가 한때다。오즉黑衿監實의 各色이 다각각 先占된 오늘날 後進朝鮮의 君等으로서 차지할 빗가리 업슴을 恨할뿐이다。

나는 이러한 反動的潮流에 對抗하야 漢字의 科學的研究를 提唱하는 것이다。이 科學的研究야말로 우리學徒의 慾求를 充足시키어 주는同時 一切 그들의 [illegible] 을 [illegible] 잇대고 [illegible]。

小品 (2)

季節의 表情

李善熙

×

장덕대엔 답장을 가로란 그늘조차 열피 내려쏘는 햇볏슨 지금곳 불을보고야 말것이다。

또다시 숨을막는 寂寞과 더위가 潮水가티 밀려든다。

나는 마루우에서 陷穽에 빠진 호랑이 색기처럼 疲困하다 臨終이 갓가운것갓다。

문득 한 意圖가 내게그를재촉한다。도감이는 방맹이가 제일이라구 나는들이낫케 우물에 찬냉수를 기러다가 머리로브러 뒤집어썻다。

이것은 어制內 발가숭이 아기네들이 가장 질거하는 冰浴法이오 그리고 또 해너머간뒤 구석진 울안에서 婦女들이 첨벙거리는 唯一한 避暑法이다。

×

눈을 들어 멀리 한울을 바라본다。

남빗바탕에 힌구름이 번지는 저한울은 分明히 내가 그바다가에 보든 하늘임에틀림업다。

바다、永遠한바다!

지금도 내가슴엔 그바다가출넝거린다。

그는 일즉이 세차찬난푼 처럼 나를 안아 그힌모래우에뭉고기가티 동댕이를첫다。

발가락을 맛기삼아 바위틈에 가재와거이를 잡는 愉快한 작란을 지게햇다。

물결이 발바닥을 할든곳에나는 새우와가티 꼬부리고 누어 魔業처럼 쓰는물을 흘렷다。

밤의 어둠을 짓고 그섬을들아 헤매이는 버릇도 그가 내게준 첫課題엿다。어리하야 記憶의 密林에서 산양해온 收穫物은 언제나 내게 살을 깍는感傷을 권한다。

×

소곰 자루속에 들어안즌것처럼 척척하고 점점하다。석은시궁창에 떠머버리고안즌情趣다。

이런때『避暑?』가봣스면… 대단히 조흔말이나 한개의不可思議다。

아모리해도 우리에게 피서다닐 資格은 賦與되지 안흔듯십다。

新刊紹介

▲科學朝鮮 八九月特輯號 京城府公平洞 一一九 發明學會內科學知識普及會發行 振替京城一八四六三番 定價二十錢

▲文學案內 九月號東京市京橋區銀座三ノ一金鷄ビル 文學案內社發行 振替東京八三六八八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카톨닉靑年 九月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 카톨닉靑年社發行 振替京城二一三四六番 定價五錢 送料一錢

黑風 【116】

韓龍雲 作

金熊超 畫

해후(邂逅) 1

향항(香港)의 ○○극장(劇場)에서『햄렛트』를 상연(上演)한다는 광고가 각신문에 낫다

여러날 항해(航海)에 시달려서 향항으로 들어온 왕한은 조리하면 왕한은 하룻세로 가운대 귀신이 나라나서 말을하는 장면을 보고십흔 생각이 나서 ○○극장에 구경을 갓는데 연극장은 대만원이엇다 연극의막이 열리라고 할때에 왓자락을두손으로 거머잡고 사람과 사람의새이를 조심스럽게 지나와서 일등 녀자석에 단정히 안는 녀자가 잇섯다 연극의 막이 열리기만 기다리든 모든사람의 눈은 방향을 바꾸어서 그녀자에게로 모으게되얏다

왕한은 그녀자를 보면서 이상한 충동을 바덧다 꿈에보던 사람처럼 분명히 처음보는 얼골은 아닌듯 하면서도 전에보든 기억이 나지를 아니하야서 의심이 날수록 아라보랴고 애를썻다 왕한은 그녀자를 눈으로 보아서는 아모리 보아도알수가 업스므로 눈을감고 마음으로 생각하야 보앗다 전일에 어대서든지 보아서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어잇는 녀자는 모조리 생각하야 보앗는대 만흔 기억중에 뚜렷이 나타나는것은 미국갈때에 배ㅅ가온대서 해적에게 부들려가든『그녀자』엿다 두번 생각하고 세번 보앗스나 틀림업는 그녀자엇다 왕한은 흥한 꿈에서 깨어나서 죽엇든 애인을 맛난것처럼

『악!』

소리를 치고 쪼처가서 부드러보고도 십헛지마는 처소가 처소요 사정이 사정이니 만치 그생각도 마음에서 나오다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마랏다 왕한은 마음이 산란하야서 연극을 볼수는 업섯다 왕한은 눈을깜작이지도 아니하고 그녀자를보앗다 그연극의 주인공인 한물렛든가 죽은 선왕(先王)의 귀신으로 나라나서 하는말을 드를때에 엄마나 정신을 드렷든지 모르지마는 왕한의 그녀자를 보는 정신이 결코 그에 나리지 아니하얏다 왕한은 한갓 그녀자를 본것만으로 만족한것은 아니엇다 그녀자가 자기를 보기를 바랏지마는 그녀자는 연극을 본는외에 별로눈을 드려서 남자 석을 보는일이 업섯스므로 왕한의 얼굴은 그녀자의 눈에 뵈일만한 기회가 업섯다 왕한은비록기침도하고 무슨 동작도하야서 그녀자로 하야금 자기를보도록 하랴고 여러가지로 주의를 끄려지마는 친착하고 단정한 그녀자는한눈도 도라보지 아니하얏다 그것이 왕한에게는 여간한 고통이아니엇다 웨그러냐하면 왕한은 전일에 배에서 그녀자를 잠깐 보앗스나 이어서 해적의 풍파가 잇섯스므로 그녀자의 성명이 무엇인지 주소가 어데인지도 모르는 그녀자에게 대한일을 무어이든지 하나도 아라둔것이 업섯다 그리하고 다만 한쪽각 마음으로 생각만 하다가 천만 뜻밧게그자리에서 맛낫스니 그것이 아모리 기이한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자리에서 그대로 호려저서 다시 맛나지 못한면 천하의괴로운일이 더클수가 업것스므로 될수잇는대로 그녀자로하야금 자기를 보게 하야서 아모조록 서로맛날 기회를 만들자는것인데 자기인줄을 꿈에도 모르는 그녀자는 본체도 아니하므로 왕한은 그녀자를 본 것붐보다 다시 맛날수가 업슬까하는 번민이 만하얏다

왕한은 언제든지 그녀자를 이저바린일이 업슬뿐아니라 그녀자의 사정을 아라보기 전에는어떠한 여자에든지 결혼을 하지안켓다고 결심하고 오든중에그여자를맛낫슨즉 무론 엄마나 반가우리라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안커니와 그보다도 그녀자가 엇지하야 해적의손에 죽지아니 하얏는가 죽지아니한것을 본다면 반듯이 해적의 첩이되얏슬것이다 그러타면 저녀자는 전일에 보든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라 무섭고 더러운 해적의 첩이아닌가 홍은 그녀자가 아니고그녀자와 가튼 다른 녀자인가고 [illegible] 생각에 알롱서서 왕한은 견될수가 업슬만치 괴로워하얏다

賣發新削發の藥
うづ 두 통
疲勞回復·神經衰弱·眩氣 二日醉
胃腸을健全케하는
頭痛藥
かやれは
하레야가
獨逸原名ハイテル

現代的인 하레야가의特色
『하레야가』는 지금까지의 副作用이만흔 單一頭痛劑와는달너서 胃腸을튼튼케하는 成分을만히가지고도貴한 複合成劑로서 代表的인바 頭痛、眩氣는勿論、服用하시면疲勞를잇고 頭腦의機能을好轉식힙니다
主效
頭痛、偏頭痛、宿醉、히쓰테라、不眠症、神經衰弱、睡眠不足、疲勞恢復、過度한執務、工夫에依한頭痛、胃腸에基因한頭痛
藥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粉末錠劑共
販賣元 東京銀座 日獨醫化學研究所 振替東京三〇〇四三

咸南道平地帶는 二割增收를豫想

數年間凶作에울든災民들 顏面에喜色이充溢

【咸興】작년 재작년 이년간거듭 흉작의 쓰라린맛을 맛보고잇든 함남의 금년도 농작상황을 보면 산지대는 아직도 예상하기에 곤난하나 평지대는 대개 천후순조의 혜택을 바더 고원(高原)안변(安邊)량군의 초기에 랭해(冷害)로 성육에 불완전하여다소 감수를 예상케하는 이외에 다군은 대체로 량호하여 전체로 보아서는 약이할의 증수가 예상된다고 하며 겸하여 견가(繭價)도 추기에비하여 확실히 고가임으로 도내의농촌에서도 오래간만에다소수미를 열개되리라고한다

天候의順調로ー 高城地方도豐兆

農家에서歡喜不已

【高城】고성지방의 수도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순조한긔후의 혜택으로 그발수상태는 소화오년을 연상할만큼 풍황함으로소화륙년이래 매년 냉해로흉작을 거듭하든 농가에서는 금년에는 풍작을 예상하고 깁버함을 마지안는중이라한다

郡誌를中心으로 清道儒林界分裂

그의歸結如何를注目

【清道】청도군 군지(郡誌)발간할계획을 압두고 청도유림계에서는 판권(版權)문제로 그간여러번 말성이 잇섯스나 판권소유자측의 양보로 향회에서도 그의성의를 인정케된나마지 군지발간의 구체적계획을 세우려할에 이르러 또다시 분렬상태에 빠지고말엇다 그입파는 판권소유자 김원곤(金元坤)씨와 도회의원 박재영(朴在永)씨를비롯한 예비향회파가 그것이오 또 일파는 지난이십륙일 명륜당(明倫堂)에서 개회한 임원회의파가 즉 그것으로 이량파의 금후 이합(離合)이 구마대중을 포옹한 청도군민의 크나큰 관심사가 되여잇다한다

假巡査崔恒默에게 懲役六年을求刑

【原州】대담하게도 경관의 집에 드러가 순사의 제복과 군도 포승등 일습을 훔쳐가지고 후 순사부장으로서 변장한 당당한 순사권위로서 원주、횡성(原州、橫城)방면을 횡행하며 량민을 협박하야 다수한 금품을강탈한 사실이 지난칠월 이십륙일밤에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하엿다 사실은 원주 경찰서에 근무하든 삼전진(森田進) 순사의집에서 발생하여 강원도는물론 전조선적으로 수배하야 범인수사에 활동중이라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강원도에서만 경관출동이 삼천여명 소방대 청년단 사천여명의 출동으로 공전의대활동이 잇섯던바 원주경찰서리종익(李鍾益)형사와 고용근(高龍根)순사 량인의손에 지난팔월이일 인천에서 범인을 체포하다가 이래 원주 경찰서에서 엄중한 취조를 밧든중 범인은 전과오범의 음성군 음성면(陰城郡陰城面)출생의 최항묵(崔恒默)으로 경찰에 취조가 끈난후 검사국에송치되여 팔월이십륙일 원주지청에서 사실심리가 잇슨후 검사대리 심정(深井)서장으로부터 륙년징역을 구형하엿다범인의고백에의하면 자긔는전과오범으로 십여년을 감옥사리한몸으로 몸에병이잇는관계로서 로동을할수업고 전과자이니 사회에서 신용해주지안어서 부득이 금번범행을 하엿다고하며 눈물을 흘니엿다한다

百餘市民連署로 電燈架設陳情

【伊川】강원도 이천읍내는 근년 장족의 발전을 보아 강원도내에서는 굴지하는곳이나 아직까지 전등가설이 되지안허 읍발주민의 불평이 가못 고조될뿐만 아니라 시가지발전상 다대한 유감을 늣겨오든터에 과반 개성전긔회사에서 소전(小田)주임기사와 중역 최증한(崔增漢)씨가 실지로 답사한결과 이천읍내에 전등가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도라간후 금번 개성전기회사중역회에서 이천 전등가설에 대한것을 결정하엿다는바 이천읍내주민들은 체신당국에 대하야 하로밥비 인가되기를 바라 지난 이십팔일 백여명의 련서한 진정서를 체신당국에 제출하엿다는바 개성전긔회사측에서는 체신국에서 인가만되면 곳 가설하기로 언녕하엿다고한다

凶作地三水郡下에 又復大雨雹이降下

直徑三寸되는것이卅分繼續 農作物은全滅狀態

【咸興】작년도래해지 삼수군(三水郡)별동면(別東面) 일대에는 금년에 이르러서도 수차강박과 장림(長霖)계속으로 흉심한 흉작을 면치못하게되여 주민의대부분은 리산의 참경이 직면하게되엿는바 지난 이십오일 오후다섯시오분경 약삼십분에 긔하여 또 직경삼촌가량의 큰우박이 쏘다저서 방금 숙성한농작물에 피해가 막대한데 동지일대에 인심은 극히 흉흉하다고 한다

八百年前石幢을發掘

開城博物館에保藏키로 考古學上에一大福音

【開城】지난 이십칠일에 개성부내 송양서원(松陽書院)의 담(略)이 문허진것을 개축하랴고 지정을 고르다가 팔모진돌에 몹서가 조각되어 잇는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하야 발굴하여보았과 이제로부터 약 칠팔백년전의 석당(石幢)으로 판명되엿는데 황해도해주와 평안북도 룡천에잇는 석당보다 약이、삼백년전에 제작되것 이라하야 고고학상에 큰 참고재료가 되리라하며 동석당은 개성박물관에 보관하여 일반에게 관람시기리라고 한다

自稱刑事出現 現金強奪潛跡

【春川】지난 칠월삼십일 오후열두시경에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 지내리(新北面池內里)조동문(趙東文)(五七)의 집에 들어가 형사라고 자칭하고 전긔조동문의 소지금 일백구원을 빼서가지고 그금전이 춘천 경찰서에 유치되여잇는 정모(鄭某)의 사건에 증거가되다하고 즉시 형적을 감추어 버린사실이 잇섯는데 이래 경찰은 범인수사에 혈안활동을 하던바 지난이십칠일에 그범인을 체포하엿다는데 현재신북면신동리(新北面新銅里)칠십륙번지에 사는 박남주(朴南周)(二六)로 판명되어 목하 춘천서에서 엄중취조중이라한다

三湖漁組主催 漁網講習會

【三湖】함남삼호어업조합(咸南三湖漁業組合)에서는 시대의발달함을따라 어류의서식도나날이변동됨으로 도저히 재래식어업긔구를가지고는 어획을 도모할수업슴을 간파하고 리사김병희(理事金秉熙)씨가 솔선하야 삼호일대에거주하는 자망수저망(刺網水底網)어민들중에서 중요분자오십여명을 소청하야 뒤넘(後越)해변에서 지난이십칠、팔량일간 천막을치고 어망강습회를 개최하엿는데 실지와리론으로 다대한 수확을 어덧다하며 강사는 김신현 리원겸 허홋(金信鉉、李元謙、許烘)등 삼씨엿다고한다

地方人事

▲納富猪六氏(郡屬)振威郡新任人事次本社平澤支局來訪

▲李晋根氏(郡屬) 上同

龍江丸上에서 乘客一名溺死

【江華】강화 삼신긔선회사(江華森信汽船會社)소유선으로 서도항로(西島航路)에 취항코잇는 룡강환(龍江丸)(十二馬力二十六噸)은 이십팔일 서도면 아차도(阿此島)를 정오에출발하야 본도로 향해오던바 오후네시경에 월곳이란곳을 통과할때 선객중 한사람이 빠저서 행방불명이되엿는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듯건데 죽은 사람은 강화군 부내면 남산리(府內面南山里)사는 박상긔(朴相騎)(三?)로서 그는 엿장사를 단이는 사람인데 그날도 교동(喬桐)에서 엿을 팔고 배가 곱하서 술을 맥잔마시고 갑판우에서 바람을 쏘이고잇다가 그만 실수하야 빠저죽은것인바 아직까지도 시체를 못차젓스며 이항로에서 이가튼일이 잇서슴은 이번이 처음이라한다

妙香 金剛 兩大名勝 探勝團員募集

本報平壤支局主催로

【平壤】려행의씨ー즌 탐승의가을을 마지햇다 본사평양지국탐승부에서는 년중행사로서 등산과탐승회를주최하여 십만부민과 적지안흔인연을 맷고잇거니와 금년에도 천하명승금강산(金剛山)과 묘향산(妙香山)을 탐승키로 되엿다 묘향산은 구월상순전후에 금강산은 구월이십일전후에 각기결행키로되여 목하평철당국과교섭중이다 규정(規定)로순(路順)회비(會費)등은 추후상세발표하기로하거니와 묘향산탐승대는 지하금강 동룡굴(蟠龍窟)도 동시에탐승키로되엿고 회비는 십원전후이며 금강산탐승대는 내외해금강(內外海金剛)과총석정(叢石亭)유점사(楡岾寺)석왕사(釋王寺) 경성(京城)등으로 회비는 삼십원전후일것이다

산을사랑하고 려행과 등산을 뜻하는 유지자들은 쟁선참가하여 이두가지 주최를 찬조하라

高句麗古墳壁畫 永久保存決定

【平壤】대동군시족면(大同郡柴足面)에서 발견된 천수백여년유물인 고구려시대고분(高句麗時代古墳)의진귀한 벽화(壁畫)는소장미술학교강사(小場恒吉)씨의 손으로 모사중이든바 이것이완료되여 일반일통 평양박물관에 진열케되엿고 벽화가잇는 고분은 등전(藤田)총독부박물관장과 협의하여 일시봉쇄햇다가 장래 적당한시긔에 보존긔관을 만드러 대동양공원의일부로 일반관람객에게 공개관람케되여 닷치어진고분대로보관키로되엿다

또한 구월일일부터 락랑고분(樂浪古墳)의대발굴도 행하게되여 세계고고학자들의래왕이 빈번케되여 압흐로 지하에감초여잇는 우리선조의문화가 계속을 드러나게될것으로 상상되어 활긔와긔대가 크다고한다

清陰金尙憲氏 遺跡碑를發見

【義州】지난이십칠일 의주농군청등림도로 공사중 약삼백년전 병자호란당시 호병에게 항복하는것을 반대하고 항서(降書)를 산산히 찌저버리고 연옥(燕獄)에 구금을 당하엿든 청음 김상헌(淸陰金尙憲)선생의 벤더에서 이백사십구년전 의주부윤 소두산(蘇斗山)씨가세운 청음선생 유적비가 발견되엿는바 얼핏보면 한조각돌에 불과하지만 력사적 그때의 사실을 다시재음미하게되엿다는데 의주읍에서는 그비를 다시세울 예정이라고한다

沃川脚戲大會盛況

【沃川】옥천 시민일동의 주최와 본보옥천지국후원인 각희대회는 예정과 가티 지난 이십륙칠량일동안에 대성황으로 종막을 고하엿는데 입상선수는다음과가다고한다

第一夜입상자

一等畜牛一頭 車明敏 二等廣木半疋 柳在鎬

第二夜입상자

一等畜牛一頭 鄭永俊 二等廣木一疋 金典洪

旅客輸送汽船이 亭子浦에서坐礁

旅客十六名은救助

【蔚山】지난 이십륙일 오후열시삼십분 조선긔선주식회사 긔선○○환 (칠십일톤)은 려객과 하물을 만재하고 경북 감포(甘浦)에서 부산으로 향하야가는길 울산군 정자포(亭子浦)압바다에서 농무와 폭풍으로 암초에 좌초되여 승객 십륙명은 간신히 구제하엿스나 하물 긔구 선체등은 하나도 건저낼수업게되여 일만여원의 손해를 입엇다고한다

朝滿럭비ー大會에 喜捨金品이遝至

各界人士聲援高潮

【新義州】공전의 성황을 예긔하는 본사신의주지국주최의 전조선과 전만주럭비ー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구월십일오전열한시부터 신의주 고보운동장에서 개최될터인데 긔일이갓가워옴을 따라 각선수들의 련습이더욱 맹렬하여지고국경의인긔는 비등되는중 각방면에서 이대회를 성원하며 후원하야 금품을 희사원조하는 인사도 만타 지난 이십오일까지 이대회에 원조금품을 희사한인사는

▲ミツバ運動具店 盾一個金八圓▲新盛洋服店五圓 ▲安國商會參圓 ▲二隆商店 ▲三共商會 ▲三協商會 ▲三和堂藥房各五圓 ▲大東書林二圓 ▲奈良井與文堂參圓 ▲泰昌紙物十圓 ▲利和洋行五圓

그女子의一生 (195)

春園 作 夕影 畵

방랑편

『이놈、이놈 이놈!』

하고 손명규는 팡진의 가슴을 타고 안즈며 한 손으로 팡진의 갈튼 머리를 검어쥐고 한 손으로는 칼을 놉히 들엇다。

팡진이가 깜작 놀라며 눈을 떳다。

팡진은 뜬 눈을 다 감지도 못하고 다만、

『어、어、어、어』

하고 전신에 어름 물을 끼언즐 때에 나는 소리를 할 뿐이엇다。

『이놈、이놈』

하고 명규의 칼은 허공에서오르락나리락 하엿다。 팡진의 눈에는 명규의 얼굴이 하늘만치 크고 그두 눈은 번개를 가랏다。 바로 눈 우에서 떨리는시펄한 칼날──그 빗!

『소、소、소、소、손성생、사사살려주』

하는 소리가 들릴락말락 팡진의 목에서 나왓다。

일초、오초、십초、일분、

『무엇이든지 손선생 소원대로 다할테니 목숨만 살려주』

명규는 물론 애초부터 팡진을죽이랴는 생각은 아니엇다。 유부녀 통간중에 동시포착하야서 팡진에게 돈을 떼어내랴는 것이엇다。 그처럼 명규에게는 벌서 사람의 염치는 업섯다。 그러나 사랑하든 제 안해가 다른사내와 한자리에 잇는것을 볼 때에는 명규도 보통사람의 감정이 나서 눈이 벌꺽 뒤집혓다。 이것은 죽여도 살인죄가 안되는 경우다。 손에 들린 칼이 여러번 팡진을 향하고 나려가려 하엿다。 어차피 전도에 소망 다 업서진 몸이라、 간부간부를 한칼에 죽여버리고 피 흐르는 칼을 휘두르며 행길로 날뛸 생각도 업지아니하엿다。 그러나 일초일초 참는 동안에 아편장이 손명규가 돌아오고 돈을 한번 크게 벌어보랴던 손명규가 돌아와다。

명규는、

『이 놈 내가 너를 친구라고 밋고 처가속을 맛겻꺼든 이 놈 내가 내가 너를 살려?』

하고 한번더 뽐내엇으나 마츰내 칼을 집에 꼬자서 양복주머니에 너코 팡진에게서 나려안즈며、

『일어나 옷들이나 입어라』

하고 이불홋잡아제친다。

테스속에 든 아이모양으로 움크리고 잇던 금봉이 이불로 몸을 싸고、

『나를 죽여주서요。 아까 그 칼로 나를 죽여주서요』

하고 명규를 향하고 엎드린다。

명규는 쿵쿵하고 두어번 코웃음을 웃고는 아모말이 업섯다。

팡진이가 옷을 다 입고나서 손명규를 보고、

『우리는 성불통내집으로 갑시다』

하고 모자를 들고 나섯다。

명규는 팡진을 이엄히 바라보더니、

『가자』

하고 따라나섯다。

탁시를 기다리는 동안에 명규는 정선을 차잣다。 침모방에서 자는 정선을 물끄럼히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흘렷다。 아비의 정이 움지긴 것이엇다。

명규와 팡진이가 나간 뒤에 금봉은 옷을 입고 체경압헤서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는 핸드백 하나와 우산하나를 들고 나섯다。

『아씨 지금 어딜 가세요?』

하고 할멈과 침모와 순이나와서 붓들엇다。 그들은 금봉이가 필경 한강으로 죽으려나가는 줄만 안것이엇다。

『내 얼는 단녀오께』

하고 금봉은 붓드는것도 뿌리치고 대문박그로 뛰어나갓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엿다。 순이가 동십자각까지 금봉의 뒤를 밟아온 때에 금봉이알고돌아서며、

『요년、따라오지말어!』

하고 발을굴럿다。

순이는 궁장 그늘로 몸을비켜섯스나 돌아갈 생각은 아니하엿다。

금봉은 두어걸음 륙조압께를 향하고 맥걸음 가더니 되돌따서서、

『순아、순아』

하고 불럿다。

순이가 궁장 그림자에서 긔어나와서 금봉의 겻흐로 왓다

夜つけて 朝の君肌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衿白粉、水白粉은 色갈이 새로움으로 속살부터 보얏케되고 더구나 生生한美白으로밀이지도안코 번치도 안슴니다 기름을 조절하는 特色이 잇슴으로 脂肪性分이 잇는분에 조코 깨끗하야 爽快한 化粧이 됩니다

愛妻의魅力은

이상하다 요새 우리 와이프는 아무리 보아도 속살부터 보얏케 히여젓서?…… 아! 오날 아츰에 와이프보고 내가 故鄕 누의한테 선물은 뭣을하엿스면 조흘가 하엿더니 누의는 시집가기 전임으로 얼골이 검고 또 化粧이 익숙지못함으로 꼭 마스타ー衿白粉과 水白粉의 濃肌色을 사보내라고 하면서 自己에게도新肌色을사다달나고 付托하는것을 보면 亦是 와이푸의 美의 根本은 이마스타ー여군……하하하

新發賣 製

새빠안薔薇

마스타ー 연지 · 입술연지 · 눈섭먹

新秋の感覺 明朗な淡化粧

マスター 一番 水白粉

朝鮮製絲會社와 三井과의內幕

◇……朝鮮人손을떠나기쉬운運命 最後結末果然如何

東大門外 崇仁洞에잇는 朝鮮製絲株式會社는 大正八年五月에 創立된 朝鮮人經營의 最初의 大製絲會社로서 資本金百萬圓 拂込七十五萬圓인데 이會社는 生絲市勢의 變動과 經濟界不況等 諸原因에 依하야 積年經營難에 빠저 現在五、六十萬圓의 負債를 걸머지고 現經營者는 金鎔國氏인데 月前부터 休業하야 그形勢가 注目되어왓스며 昨今藉聞에 前經營者閔奎植氏 出資에 依하야 更生이 云云되는中 인데 本社에서 調査한 其間의 休業情況과 이번資金融通問題에 對한 內幕은 大體如左한모양이다。

×

이번休業의 原因은 三井物産에서 資金을주되 前金三萬圓을내라고한데 말성이 생긴것으로 朝鮮製絲當局者의말을들으면 三井物産에 負債十六、三萬圓이 잇기는하지만 그것은 前經營者의 빗일뿐아니라 이미會社株가 擔保로 들어가잇는터이다 그런데 昨年에는利益이 남엇슴으로 그利益만큼은前負債償還에 充當함은 當然하다하겟지만 前金까지를 負債償還에 充하고 번번히 새로이 前金을내라하니 무슨수로 前金을작구내어갈수잇겟는가? 結局三井으로서는 朝鮮製絲에對한 債權을 全部밧기까지는每번前金을밧을작정이니 이래서는 會社를經營해갈수업다한다 그럼으로 三井에서 態度를緩和키前에는 現經營者로서는 讓步할餘地가업다고한다。

×

形勢가이러케되고보니 會社當局보다도 掌握하기는 三井側이다 잘못하다가는 朝鮮製絲를亡칫다는소리를 듯기쉬웁고 一方 監督官廳으로 부터는 何等의 方法이 업느냐고 干涉하야 올으로 別 方法을 取치 아니할수업게되어 三井側은 某方面을 介入식히어 前經營者인 閔奎植氏에게도 交涉하야 資金을 새로 내고 經營에 參入하라는뜻을 보이어 朝鮮製絲의 更生이라는말이 떠돌게 된모양인데 當者인 閔氏는 資金을 내일이업고 經營할 意圖도 업는모양이다。

×

閔氏로 말하면 自己經營時에 가진애를 태던것도 지긋지긋한데 이번에다시 關係를매질생각이 업슬것이오 自己가 拂込한株金까지도간신히年前에 차저내와서시원하기한터인데 판에 말성만코 구찬은 이事業에 다시손을대이기가 실혀서 當場交涉에도 應하지안코 잇다한다。

×

資金融通問題가 이러케되고보니 三井側으로서는 債權을밧는數가 아니라 朝鮮製絲를 그려가지點에잇서 朝鮮製絲를 그냥 閉門식힐수업게되니가 最後의 腹案으로는 閔氏와의交涉이 깨어지고 다른出資者도 업슬境遇이면 表面에는 三井側 사람을 내세우고라도 三井側에서그直系會社로 經營케될는지까지도모르지안타한다。

×

이問題는 朝鮮製絲當局 側의相對者外에 東銀 殖銀等 大口債權者와의 關係가적지안어 總督府當局에서도 局面打開에 注力하고 잇는터로서 二、三日間안으로 何等의 具體的決定이 잇슬모양이라는데 果然 어떠한歸結을 보게될지 形勢가注目된다。

蓬萊米、拂下米 朝鮮內繼續移入

全體的으로需要가顯著하야 新穀期까지相當豫想

在米涸渇!

朝鮮內在米의 枯渇로 日本內地拂下米는 七月以來 蓬萊米는 그以前부터日本內地中繼로 木浦 群山 新義州 安東等方面에 主로移入되는터이며 專門家側에서는 最近까지 雙方에서 約二十萬石 가량이 朝鮮에 移入될것으로 觀測하나 蓬萊米 日本內地拂下米가 모두 朝鮮米보다 相當한低價임으로 그價格을 엿보아 買付하고 糧米 또는 製菓用으로의 全朝鮮的 需要를 喚起하야 不遠拂下될 買換百萬石調節의 五十萬石에 對하야도 木浦 群山 仁川 元山 淸津의 各開港地業者는 벌서日本內地側業者와 買付를 開始하고잇슴으로 拂下後는 今後도 新穀期까지 相當한 日本內地拂下米의 移入을 보게될形勢이라고한다

米運賃協議會 不日中續行

朝鮮米輸送對策協議 三局會議는 廿九日 午前十時부터 開催豫定이든바 三局內에 事務關係로 好意지못하야 穀聯會長有賀光豊氏는 午前十時半 矢島農林局長과 會見하고 繼續하야 殖産局長과 懇談한後 午前十一時부터 農林局長室에서 有賀氏를 中心으로 矢島、穗積兩局長 石塚、堂本、山澤各課長等의 意見交換을 行하고 十二時에는 高松海事課長도 參加하얏는바 그날은 輸送問題解決에 對한 有賀氏의 所見을듯고 各局의 意見開陳의 程度에 갓치고 三局會議를 不日中에 續行하야 總督府의 根本方針을 決定하기로되엇다

滿洲不景氣

商取引不振深刻

國幣低落과 金融梗塞은整理期에드러간 滿洲景氣頹落으로 總督情報에依하면 滿洲의 最近商取引은 萎縮不振이繼續한다即

一、繼續하야災害餘燼이不去하고農民의困窮極度로 購買力이顯著히疲弊한것

二、國幣의低落、金融梗塞은 商取引에 甚大한 影響을주어商況은 活氣를 일흔것

三、滿人側의 中小商工業者倒産이 續出하야 買는極度로警戒

四、建設景氣는 一段落을 告하고 日本人商人에는 不振傾向이顯著하야 中小商人의 整理時代에드러가다

製絲業內容調查

所謂不良業者를淘汰코저 少規模業者大打擊

◇旣報=朝鮮製絲業令의 施行期를 압두고 總督府農林局에서는 全朝鮮 五釜以上製絲業者의 詳細한 業況調查를 進行中이라는데 이것을 主로 製絲業令 第三條 第四條에 依하야 所謂不良製絲業者를 嚴烈히 淘汰하야서 基礎가 鞏固한 製絲業만을 남겨두려는것이라는데 從來 微微한資本으로 簡易經營을 維持하여오는 小規模의 業者에게 大打擊이 될것은勿論 特히 小規模業者의 大多數를占한 朝鮮人業者에게 打擊이 甚大할것이事實이라한다

朝銀對滿金融 消極方針化?

滿洲及北中에서 朝銀이 今後如何한 金融政策을 할는지는 各方面의 注目을끌고잇는바 爾來 朝銀에는 積極消極의 兩論이 잇서 北中工作未完成의 今의 希望도잇서서 朝銀首腦部도最初 復活할 意思가잇스나 그後의 情勢變化는 드듸어 最近復活을 中止하게되엇슬뿐더러 關東으로부터 特히말이잇는 國庫金取扱을 爲하야서의 出張所設置에 對하야서도 難色을 示하고잇슴은 滿洲國에잇서서의 朝銀의 金融政策의 一端을 示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되고잇는바로 朝銀으로서는 治外法權撤廢後의 滿洲의 金融界는 滿洲中央銀行을 中樞로하고 指導監督할것이라는立場을取하고잇다고보인다

各道產組의 認可方針內容

大體原則을決定

各道의 產業組合設置要望에 對한 總督府의 認可方針은 다음과가티 괴가고 特히 金融組合聯合會와의 協調가 注目된다 卽 이미 要望五十餘에 達하는 產組設置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一、原則으로 新設은 國費補助를하고 豫算의 範圍內에서 設置를 認可함

二、國費補助와 同額의 道費補助를할수잇는것을 認可함

三、無補助에서도 基礎가 確實한것은 認可함

四、設置에잇서서는 金組聯合會支部의 意見을 徵함

人絹操短 折衷案成立

【大阪電話聯合】人絹聯合會에서는 次期操短率에對하야 過日以來 協調中으로 指導的主張과 義務輸出制撤廢案의 兩論이 對立하엿든바 다음과가튼 折衷案이 有力케되야 不遠決定케될모양이다

一、現行操短率三割(그中一割은輸出組合)을 二割五分及共同保管五分으로하고 義務輸出을撤廢함

그러나 共同保管制는 過去의經驗에 徵하드래도 將來市場을 騷亂할 原材料가 될것을 恐함으로 가령 右案과가티 決定되드래도 十六七萬梱의 在荷가 잇는 狀態로는 이點을 鮮明解決할수 업다고한다

博物館寄付金

殖銀、京電各十萬圓 朝銀、東拓은各五萬圓

總督府博物館의 建設寄付에對하야 總督府에서 各銀行會社에 各各申込하엿든바 各社가 아즉未定이나 內定한곳은 朝銀、東拓은 各五萬圓 殖銀、京電은 各十萬圓으로 될모양이라고

米國의大商店 日本品調查團派遣

【東京電話聯合】在市俄古小川貿易通信員으로부터 東京商工會議所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米國最大의 通信販賣店 市俄古의 시아스로바-크社 及日本品을 年額百萬弗이나 輸入하는 市俄古의 빠름리부라덜스社는 今回日本品市場 特히 敷物、陶磁器、雜貨物에 關한調查團을 派遣하기로 되엇다 將來는 日本에 購買代理店 또는 支店을 設置할 豫定이라하야 日本에 對하야 米國有數한 會社이니만큼 期待되고잇다

二田原取引員免許

二田原秋三郎氏는 朝取證券部取引員을 申請中이든바 二十九日付로 免許되엇다 한다

經濟界消息

○北鮮製紙工場一部入札=北鮮製紙에서는 吉州의 工場建設에關하야 東京事務所에서 準備中이든바 來月初工場의 一部를入札에 附키로되엇스며 다음에工場의 他部分도 部分入札에附할터인데 目下 建設中

의限社宅及事務所는 來月中旬에는 完成할터이라고

自由繭市場 京城不入札

業者의決議가成立

京城自由市場繭의 處理는 製絲家側協定에 依하야 共同動作을 取키로되야 아즉도 仲買人의 所持로되어잇는데 大邱自由市場繭을 當地製絲家가 入札購入케되드래도 京城은 昨年의 經驗에 鑑하야 入札치안키로 製絲業者의 決議가 成立하엿다。

大邱市場 市場改革斷行

新鮮大邱의 自由市場繭의 問題는 止論까지 생기는데 이夏秋繭出期로부터 大邱自由市場에서는 自由市場의 改革을 斷行하기로되엿다 問題는 그成果如何인데 案의內容은 各仲買人의 個別店舖買에 依한 無統制를 改善하고 大邱의 仲買人組合이 組合에서購繭所를 設置하고 日本內地의 天草市、宮越市와가티 市場購繭을 行하는것이다 이것은 自由市場의 商價關係이 問題로 되여왓슴으로 對하야良結果가 豫想된다 內繭市場의 供給不足으로 因한 一般에서는 自由市場改革을 豫想하고 잇다

商法改正의要點

非株主重役制其他

現行商法은 明治四十四年의制定으로서 그後 顯著히 社會의 變遷을 經하야 時代에뒤진 感이잇슴으로 司法省에서는 斯界 法制審議會의 要請에基하야 數年來 商法改正案의 起草를 急히하든바 近者 이것을 全部 終了하얏슴으로 九月十三日 該委員會에 案을總會에 附議하야 議決키로 되엇다한다。 今回 總會에 提出될 改正商法은 第一編總則、第二編會社法뿐이나 委員會案 通過後는 條文과 文句를整理하야 來議會에 提案할 意嚮이라한다。

×

改正案中 가장 特色이 잇는點을 列擧하면 如左하다。

一、露店商人、大道商人도小商人과가티 商法上의 適用을 受키로되엇다。(但 現實問題로서 現在와가틈)

二、會社의恩惡=會社가 成立後 六個月의 期間內에 營業을 開始치안코 또 그期間內를 休業할때와 會社重役이 公序良俗에 反할境遇는 斷乎會社의 解散命令을 할수잇다

三、債權者의 權益擴張=會社(主로서 保全會社와 如한것)을 指摘한財產을 隱匿하고 債權者의 差押을 容易케하지 안흘때는 債權者는 六個月前에 會社에 通告하야 그 社員의 持分財產을 差押할수잇다。

四、社員의 除名=債務者가 債權者를 害함을알고 合名會社나 合資會社를 設立하야 그 財產을 會社名義로 書換하고 差押을 不能케할때에 債權者는 裁判所에 申請하야 會社는 存續식히드래도 그社員의 除名을 請求하고 그決定에 依하야 債權을 取得할수잇다。

五、定款은 반드시 私成을 不許한 公正證書의 作成을 要한다。

六、株式의裏書讓渡=株式讓渡는 白紙委任狀의 制度를 全廢하고 讓渡의 便宜는 株式의 裏書讓渡를 하게한다。

七、株도가지지안흔重役은 그就任=會社取締役、監查役은 그會社의 株券一株도 所有치안코 會社總會의 手續을 經하야그職에 就할수잇고 株主임을要하는 資格 撤廢에依하야 廣히 人材를 拔擢할수잇스며 會社株式은 名義書換後 重役이되게하야 그 株式名義의 遡及을 行하며 그形式을 改正케하야 現行法을 打破하얏다

八、整理命令=會社가 營業不振으로 破產에 瀕하얏슬境遇는 破產申請을 하던지 强制執行을 하던지 하야 會社를 破算케하는 事를 避키 爲하야 裁判所는 强制的으로 整理命令을 發하고 會社內外로부터 整理委員을 任命하야 이것을 監督하며 破產申請과 强制執行을 防止하야 會社의 整理를 促進할수잇게한다

九、會社侵害者防止=株式讓渡六個月을 經過치안흔者는 議決權의 行使를 할수업게되어 巧妙한 手段에 依하야 總會直前에 株式名義書換을 行하고 故意로 會社總會를 混亂케하야 奇利를 博하는 會社侵害者를 防止한다。

그리고 債務會社의 淸算事務에 特別淸算이라고 新法을 加하야 淸算事務의 徹底的促進을 圖함으로 係項等이 잇서 新法의 精神은 歐米各國의 立法例를 加味한것으로 內外로부터 그 成果를 期待하고 잇다한다。

今日財界 (三十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大阪期米 先限、三等米、正租(仁川渡良)一石、在來 一斤

◆市中金融 金 一分四厘 一分四厘

◆株 朝新、東新、日產、大阪人絹、大阪綿花、大阪後場

商況 三十日 小高後에更弛

株式

前場小高 今前場은 九月諸株輕調로 紡弱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一圓二十錢高인百七十三圓二十錢、大新二十錢高인 七十六圓五十錢、日產八十錢高인 八十七圓九十錢、朝新二十五圓八十錢에各大引되고 帝人百二十一圓一錢一本이엿다

後場更弛 後場은 大阪短期受渡休會, 短期一時間立會에 依하야 當地도 早引이엇는데 商勢는 軟化狀으로 前場引에比하야 東新七十錢低인 百四十二圓五十錢 日產九十錢低인 七十五圓六十錢 大新卅錢低인 八十七圓七十錢、日魯五十四圓丁 日鑛新卅九圓丁 安取七圓五十錢에各大引 朝新卄五圓九十錢一本

一部秋高期待 一部小市勢觀

一個年間에 亘한 下落市勢가整理에 依하야 株의 過剩이消化되것 商品界도 增產時代를 지나서 統制時代에 入한것 貿易도 全面的으로는 決코 衰微한것이아니것 中國의 親日政策傾向이 濃厚한것 米國景氣의 底力잇는 景氣가 恢復을 보인것 豫算은 依然한 膨脹으로 低金利가 繼續될것等에 依하야 第二期戰은 相當한 持續性이 잇는 秋高가 展開될것으로서 一氣로熱狂치안는마큼 市勢에 好味가잇스며 採合하면할수록 好勢가 約束된다고 强氣的 解釋을 하는一面에는 生絲好調가 얼마나 繼續될지? 米國景氣의 動向과 相俟하야 樂觀만할수업고 歐洲時局으로 軍擴의不可避景氣期待이나 早計일것갓고 特히 豫算問題의 推移如何로는 增稅가 時期問題일것쯤에 依하야 全般으로는 氣迷를不脫하고 秋高期待가 적어지고 小市勢保合觀이 擡頭되어가는모양이다

東新去勢理由 支配力의移動

株式市勢를 支配하는힘이 어듸 잇느냐? 에해解까지는 株式市場을 關聯한 支配力을 株式賣買業者가 掌握하고 先物에서 가장가치잇든 東新을代表株로 내세워가지고 全株를 팔고사고 거의自行自止하고 市勢의 騰落을 마음대로해온것이 事實이나 時代의變遷과아울러 그支配力이 社會性을加케되고 大衆에게로 그힘이移動된것이 注目된다。 그리하야 從來株式賣買業者가東新을가지고 작난하던勢力이 減殺되고 떨어서 東新의 無力이 이에依하야 招來된것이라하야도 過言이 아닐程度로되엇다. 이것은 一般이 探實에눈뜨고 投機가 浮薄한 時代가 지나간것을 意味하는것으로서 東新이 人氣의中心이되여 全般高리-드를하든時代가 容易히 再來치 안흘가 觀察되는터이다。 이번 反撥市勢에 잇서도 市場自體로서보면 오랜 不振의뒤이엇고 取引가 少數이오 市場有力者가 强氣에 加擔한과 事業家本家의 一部가 不少한場에 加擔한것에 依한것이나 昨今에秋高期待가 强硬되고 鐘紡의 市勢를 支配하는 大衆의 힘이 弱氣에 加擔한때문이라고 볼수잇다는 말이잇다

期米 伸惱頭重 鈍狀

前場伸惱 昨後場 阪地卅圓六十八錢止와共히 廿八圓四十一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卅圓五十八錢인 十丁高로 場을始하야 廿八圓卅五錢인 十六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七十六錢인 約廿丁의反撥을 示함에도不拘하고 겨우卅八錢의高値를 示하얏슬뿐으로 結局阪地七十一錢止를 伴하야 三十四錢에場을 止하엿다

後場頭重 後場은 廿八圓卅九錢에 五丁高로始場後 三節四十三錢이 잇섯스나 戻賣物로 五節卅三錢에 떠러지고 三十一錢에 止場하다

市場六感

株

蔣介石氏는 反蔣派將校團에게 抑留되얏다는 소식이잇다 ▲日中親善을 云云하는 此際에 中國最高幹部의 뒤숭숭 恐慌影이나 업슬지? ▲東京大阪에서는 持米側이 大勝에잇서 사지도안코 팔지도안코 比較的 傍觀態度이라하며 다만 市場을 中心으로한 投機投資買의 局營者가 踏上하며 投出하는程度이엇다고 ▲强氣는第二期戰을 期待하고 秋高를 밋으며 弱氣는 末底人을 云爲하야 市勢는 保合인데말로만은 强弱이 懸殊하지만 ▲結局은

米

今朝阪地 三十圓七十錢臺의 高價를보임에도 當地는 依然 二十八圓二十錢臺를 住持할뿐으로 絕對高價를 不許▲勿論 地場의 關係로 그러하나 아무리地場의威力이라 할지라도 訂正市勢가 必至할것을可期▲金太店을 本營으로한 東京山種의 賣物이 果然 그얼마인지는몰으나 今後渡米가 또한問題▲에잇서는大衆에게 顯著히 添力할 大好材料를 迎하여야 上向의 大市勢를 招來하겟고 大衆을 疲弊식힌 市勢에 至하면 大暴落市勢를 演하겟는바 그럿치안는限 市場仕手關係如何에 不拘코 上下共히 큰市勢는업지안흘가?

訂正市勢必至 大勢不可輕視

阪地는 今朝 三十圓五十八錢까지의 小落을示한後 七十錢台로 反高함에도 不拘하고 當地는 今朝 初付二十八圓二十五錢인 十六丁反落을告한後 十餘丁返戾에 止함뿐으로 地場側의 絕對威壓을 加하고잇다 實로 阪仁의 鞘가 二百三十餘丁으로 擴大되어 地場、米穀商의 仕手關係를 如實히 擁護하고잇스나 그러나 市勢의 自然은 人爲的으로 抑制하지못하는마큼 訂正市勢가 必至할것을 豫期할수잇다。 그 條件 몃가지를 擧하면 阪地先限은 中限에 比하야 百四十餘丁鞘下게아니되여 反하야 當地는 中限의 鞘가 二百二十丁이나 擴鞘되엿스며 又는 今前場으로서 納會되는 當限의 渡米가 完備되지못하야 三十一圓七十錢이란 近年稀有의 高價를 示함으로보아서 中限에 入한後의 渡米調達은 又一層 困難을 밧게될것임으로 中限의 將來도 渡米難의 爆發時勢가 展開될것을 豫想할수잇고、從하야 十限도 新米의 出廻가 如干잇다할지라도 渡米의 蒐集이 또한 昂騰하고야말것이며 從하야 阪仁의 鞘도 順調로 恢復되고야말것이다。

當限一代記 步幅四百七十丁

今前場으로써 最後一幕을 告한 當限은 二十七圓〇一錢에 發會되어 二十六圓七十五錢까지 小押한後 因而昂騰途程에 入하엿섯다 過去四、五兩月은 意外渡米의 威脅으로 反落을告하엿섯스나 七月부터 在米의 品薄說과 十限이 當限되는때는 비록新穀期라하지마는 時期尙早의嫌이不無▲今前場으로써 納會된 當限은 一時渡米가 完備되엿다고傳하엿스나 其實은 一萬四千石 取組에對하야 萬石의 準備밧게 아니되어 結局爆發 此限의 決戰으로보아서 中限의將來도 또한 渡米難의市勢가 잇슬것을可知▲平年作이라고 發表된日本內地의 本年稻作은 發表後에 被害가 不少하엿스나 結局 凶作에 近하지 안흘는지몰라▲朝鮮의 稻作은 八月二十五日 現在의調查로서 一千七百萬石 이라고하다。比較的良作이라 할수잇스나 日本內地의 不作關係로 今年初伏의米價가 容易히 低落치 못할것을 可期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小口側 僻買 地場中東側 地場正米側 ▲買方 田中眞 神戶側 株式側

堂限受渡內容

▲渡方 ㉠一〇〇 ㉡一、〇〇〇 ㉢二〇〇 ㉣一〇〇 ㉤五〇〇 ▲受方 ㉠二、二五〇 ㉡一、一〇〇 ㉢一五〇

受渡石數 一萬二千八百石 渡値段 三十圓七十錢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中限 ◆買方 先限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一六九三 一一六五

期米 福 正米 古村取引店

各地正米

京城穀商 賣物稀少과 朝米高에 刺戟되어 氣配三十錢騰 中米時代의 品質低下 [illegible]

仁川奔騰 日本內地注文到來로 不足하고 定期의 昂騰을 相俟하야 一等白米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八十錢

釜山閑況 日本內地 古米의 逆移入旺盛으로 繼續하야 市中取引이 적고 一等白米三十二圓丁 四等三十一圓四十錢

大邱上放 四十萬石 古米整理發表로 上騰되나 期米高와 實物薄으로 小勝하얏고 三等二十九圓七十錢

群山强堅 政府의 古米整理發表가 잇스나 日本內地는 特殊品에 對하야 買氣를 보이고 定期高와 相俟하야 氣配十錢高

木浦硬化 實買雙方共히 越月待로 人氣이오 傍觀狀態이나 一等白米 十三圓六十錢

南浦保合 人氣는 越月待로 市況閑散이오 依然市勢保合인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金融 三十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貨入價 ◆米穀 京城正米 三十日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 京城綿糸布市勢 三十日 ◆京城綿布 ◆京城砂糖

◆日本麥粉市勢 ◆大豆粕市勢 ◆油冲價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豆粕冲價

[illegible]

仁川 期米 劉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 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株式 三十日

◆朝取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現物賣買高 ◆實物代引 日步

	前場	後引	高値	低値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三十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取組 ◆東京期米 ◆朝鮮內各場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商品 三十日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